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23년 2월
석사학위 논문

지적장애아동의 부-자 치료놀이
에서 아버지 상호작용
변화과정에 대한 질적사례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상담심리학과

최혜림

지적장애아동의 부-자
치료놀이에서 아버지 상호작용
변화과정에 대한 질적사례연구

A qualitative case study on the process of
changing father interaction in father-child
theraplay of children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2023년 2월 24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상담심리학과

최혜림

지적장애아동의 부-자 치료놀이
에서 아버지 상호작용 변화과정에
대한 질적사례연구

지도교수 오 지 현

이 논문을 상담심리학 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10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상담심리학과

최 혜 립

최혜림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 수 권해수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 수 정승아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 수 오지현 (인)

2022년 12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목 차

I. 서론.....	1
II. 이론적배경.....	5
A. 지적장애아동의 놀이성.....	5
1. 지적장애.....	5
2. 놀이성.....	6
3. 지적장애아동의 놀이성.....	8
B. 지적장애아동과 아버지의 놀이상호작용.....	10
1. 부-자녀 간 놀이상호작용.....	10
2. 지적장애아동과 아버지의 놀이상호작용.....	12
C. 지적장애아동의 부-자 치료놀이.....	15
1. 부-자 치료놀이.....	15
a. 치료놀이.....	15
b. 부-자 치료놀이.....	17
2. 지적장애아동의 부-자 치료놀이.....	18

Ⅲ. 연구방법	20
A. 질적사례연구	20
B. 연구참여자	21
C. 연구절차 및 자료수집	22
D. 부-자 치료놀이 계획	23
1. 부-자 상호작용 특징분석	23
2. 부-자 치료놀이 개입전략	25
3. 부-자 치료놀이 프로그램 개요	26
E. 측정도구	29
F. 자료분석	30
Ⅳ. 연구결과	32
Ⅴ. 논의 및 결론	46
참고문헌	50
부록	59

표 목 차

<표 1> 부-자 치료놀이 프로그램 개요·····	26
<표 2> 아버지 상호작용 변화과정의 양적분석·····	32
<그래프 3> 아버지 상호작용 변화과정 양적분석 그래프···	32

ABSTRACT

A qualitative case study on the process of changing father interaction in father-child theraplay of children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Choi Hye Rim

Advisor : Prof. Oh Ji-Hyun, Ph. D.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iogy,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rocess and meaning of the change in the interaction between children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and fathers who participated in the father-child treatment play. The process and meaning of the change in father-child interaction were analyzed by conducting treatment games that proved effective in forming attachment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for children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and fathers.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father's parenting behavior and father-child interaction changed positively. 'Awkward, hopeless: What does it mean to play together...? Play is unfamiliar', 'Trying, discouraged: Let's help healers do something, Education rather than play', 'Hard, teaching: Children are excited when they participate in play, but it's hard otherwise', 'Soft, funny: even if you don't get angry..', 'Comfortable touch, proud: The Effects Only Dad Can Give' and 'Touch-match, proficient: Embracing Children's Feelings and Behavior', Six themes were derived, It was possible to find the meaning of 'making relationships with play and body', 'being together with your eyes with your body', and 'being a father with your whole heart'. Through this, it was confirmed that the father-child treatment

play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change in the interaction of fathers raising intellectually disabled children, which is expected to be a basic data in parent education, especially father education, as well as intellectually disabled children.

I. 서론

AAIDD(미국지적장애 및 발달장애학회)에 따르면, 지적장애란 지적기능과 적응행동에 현저한 저하를 보이는 장애를 말한다. 지적기능은 학습, 추론, 문제해결 등 일반적인 인지적 기능을 의미하며, 적응행동은 개념적, 사회적, 실행 기술을 의미한다. 유, 아동기 지적장애의 경우 학습, 심리, 대인관계 등에서 또래의 비장애아동과는 다른 발달양상과 특징이 나타난다. 지적장애아동은 주의를 집중하는 시간이 비교적 짧고 쉽게 산만해지는 모습으로 인해 학습장면에서 연속적인 지시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곽은정, 신진숙, 2011). 또한, 비장애아동은 유아기 때부터 또래관계 속에서 언어나 행동을 통해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고 상대방의 감정도 헤아리며 상호작용을 유지하는 반면(Hartup & Moore, 1990), 지적장애아동은 낮은 지적기능으로 인해 사회적 기술 습득에도 어려움을 보인다. 이러한 특징들은 지적장애아동의 사회적 부적응으로 이어지고 계속되는 실패경험은 학령기에 학습된 무기력, 낮은 자존감 및 불안과 우울이라는 2차적 문제를 가져오기도 한다(유아림, 김갑숙, 2016; 송준만 외, 2016).

유, 아동기는 놀이를 통해 주변 환경을 이해하고 사회적 관계 및 정서기능을 향상시켜나간다. 놀이의 발달은 방관자적 행동과 함께 다른 또래나 부모에게 다가가는 시도 없이 혼자서 하는 놀이에서 비롯되어, 점차 인지발달과 사회성 발달을 이뤄 또래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하며 이루어나간다(Stone, Lemanek, Fishel, Fernandez & Altemeier, 1990). 이러한 놀이발달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 중 하나는 놀이성이다. 놀이성은 놀이행동을 일으키는 성향이나 태도로 놀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정도이며(Barnett, 1991), 놀이의 질적인 차이나 특징, 놀이에서 보이는 아동들의 태도를 의미한다(이배, 김경숙, 2013). 지적장애아동은 놀이양상이 단순하고, 놀이를 진행하기보단 주로 탐색하는 시간을 보내며 놀이의 선택범위 또한 제한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자폐스펙트럼아동과 달리 지적장애아동의 경우 단순한 동작의 모방이나 까꿍 놀이와 같은 사회적인 놀이에서 소극적인 모습은 나타날 수 있으나 불가능하진 않다. 하지만 놀이의 지속시간이 짧고 상징놀이, 상상놀이와 같은 복잡한 놀이형태 및 습득에서 어려움을 보이기 때문에 놀이욕구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놀이집단에서 소외되거나 놀이를 진행할 기회가 빈번하지 않다(김단희, 2012).

이렇듯 낮은 놀이성은 지적장애아동의 놀이발달에 제한이 생기고 적응행동에 영향을 준다(진홍신, 2003). 뿐만 아니라 유아동기의 경우 부모 및 또래와의 놀이를 통해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이해하고 표현하며 상호작용을 익혀 가는데(Hartup & Moore, 1990) 지적장애아동은 한계가 있다(Bundy et al., 2007).

부모-자녀 놀이상호작용이란, 놀이를 진행하는 도중 부모-자녀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행동적, 언어적 상호작용을 의미 한다(Stern, 1977). 특히 아버지와 자녀의 놀이의 경우 신체적 자극이 강하고 거칠다는 독특한 특징이 있으며(Lamb, 1986), 이는 신체놀이를 주로 사용한다는 뜻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어머니에 비하면 아버지가 자녀에 대한 민감성과 양육역량 등은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아버지의 활발하고 신체적인 놀이성이 보호요인으로 작용하여 아동의 정서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Menashe-Greinberg와 Atzaba-Poria, 2017), 아버지와 놀이는 아동의 전반적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Roggman, 2004). 이러한 아버지 놀이상호작용은 언어적 기능에 결함이 있는 지적장애아동에게 언어를 주로 사용하는 어머니와의 놀이보다 자기조절과 사회성부분에서 효과적이다(송은혜, 2008). 신체놀이는 아동이 또래나 부모의 행동을 모방하고, 이들에게 놀이를 제안하며, 신체적인 능력과 함께 가상적 상황, 상상놀이가 혼합되어 이루어지는 놀이 양상을 보인다(고여훈, 엄정애, 2010). 이는 자발적 놀이 또는 상상놀이를 촉진하여 지적장애아동의 놀이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아버지와 거친 신체놀이는 사회적 상황 및 또래관계에서 위축되고 자신감이 부족한 지적장애아동이 수행하기에도 어렵지 않은 잡기놀이와 도망치기 같은 단순한 놀이들로 이루어져 상대를 자연스럽게 놀이상황에 끌어들이는 경험은 성공경험을 느끼도록 도와준다. 이처럼 아버지와 지적장애아동의 놀이상호작용은 어렵지 않게 참여할 수 있는 신체적, 활동적인 놀이들을 통해 지적장애아동에게 상호작용의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고, 아버지에겐 아동과 함께 놀이시간을 가지고, 더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줄 것이다.

한편, 아버지보다는 어머니들이 장애를 가진 자녀를 주로 양육하고 더 책임감을 가져야한다며 요구하는 사회의 현실이기도 하며(김경림, 2022), 장애자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 보다 훨씬 높다는 점과 어머니를 초점으로 대부분의 장애아동 부모교육이 진행된다는 선행연구들을 미루어봤을 때(전병주, 2016; 최선경, 2004), 장애아동을 키워내는 어머니들을 더욱 고되고 낙담하게 한다. 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써 아버지의 양육참여정도

에 영향을 받는다는 선행연구들과(고수정, 권순용, 2015; 김은영, 2013; 현경미, 강대옥, 2017)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지적장애아동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는(김한나, 정은희, 2013) 지적장애아동의 양육에 있어서 아버지의 참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아동 부모교육과 상담에 대한 연구동향을 고려해 볼 때, ‘어머니’ 대상의 연구는 14편, ‘아버지’ 대상의 연구는 단 1편에 그쳤다(홍정숙, 조정민, 2021). 장애아동 가족프로그램이나 가족상담이 증가한 이유도 최근 아버지의 양육참여 및 역할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결과적으로 아버지의 참여가 가족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부모가 지적장애아동에게 제공하는 자극과 장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연구의 실태는 미흡하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아버지의 놀이적 강점을 활용하여 지적장애아동과의 놀이상호작용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지금까지의 지적장애아동의 교육 및 치료적 개입에 대한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집단 언어 및 미술 치료프로그램 효과성에 대한 연구가 주가 되며 이는 초등학교 통합학급의 현장에 적용하는데 수월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문명국, 은혁기, 2022). 반면, 집단 프로그램은 지적장애아동의 개별적 특성이나 지적기능의 수준을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계를 가진다(김도희, 2017). 다시 말해, 지적장애아동 대상 치료프로그램들이 아동 개인의 발달적 양상이나 특징을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개입으로서 치료놀이 접근이 지적장애아동과 아버지의 상호작용을 향상시켜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치료놀이(theraplay)는 애착이론을 바탕으로 부모-자녀의 애착과 관계증진에 중심을 둔 놀이치료 기법이다(Jernberg & Booth, 2011). 지적장애아동은 치료자의 개입에 의지하여 몰입해 놀이를 따라올 수 있게 되고, 놀이상황 속 성인의 모습은 지적장애아동에게 모델링의 대상이 되어 아동의 놀이를 정교화 시키며, 높은 수준의 놀이를 가능하도록 돕는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직접 치료놀이에 참여하는 부-자 치료놀이를 통해 아버지와 지적장애아동에게 함께 즐겁고 안전한 놀이상호작용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장이 되어줄 것이다(김세영, 2015). 또한 부-자 치료놀이에 참여하는 아버지의 경우 아동에 대한 이해와 욕구를 얻을 수 있으며 지적장애아동을 양육하는데 더욱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치료놀이가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 향상에 효과적이라는 결과(임선자, 선우현, 2018)는 아버지의 상호작용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이 연구와도 맥을 같이 한다.

이제까지의 지적장애아동 치료프로그램들은 효과검증과 같은 양적연구의 사전, 사후점수를 비교한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통계적 기법을 통해 효과성을 제시했는데(김도희, 2017), 이는 치료과정에서 변화과정을 면밀히 탐색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고자 본 연구는 부-자 치료놀이에 참여한 아버지의 상호작용 변화과정과 그 의미를 발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질적 사례연구란 사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그대로 인식하기 위한 방법인 만큼 연구참여자의 사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을 미루어볼 때, 본 연구의 목적과 부합한다(Yin, 2011).

따라서 본 연구는 부-자 치료놀이에 참여하는 동안 아버지의 경험과 생각, 감정 등 아버지의 생생한 과정과 경험을 질적사례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여실히 드러내보고자 한다. 즉, 부-자 치료놀이에 참여한 아버지의 경험과 무엇이 아버지의 변화로 이끄는지 그리고 그 변화의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치료적, 교육적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면 지적장애아동과 부모 및 가족상담 적용의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연구의 질문은 다음과 같다.

연구 질문. 부-자 치료놀이에 참여한 아버지의 상호작용 변화과정은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A. 지적장애아동의 놀이성

1. 지적장애

지적장애라는 용어의 개념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적장애는 본래 AAIDD(미국지적장애 및 발달장애학회)에 의해 정신지체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2010년 11번째 편람부터 지적장애라는 명칭으로 바꾸어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명칭의 변화는 각 용어의 기초를 이루는 개념을 비교했을 때, 바로 장애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에 기초한다. 정신지체는 개인 안에 결함이 있는 장애로써 개인내적인 조건, 개인병리모델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지적장애라는 용어는 인간 기능성의 다차원적 모델에 초점을 두고, 신경적 손상을 원인으로 능력에 제한을 보이는 것이며, 이는 개인이 지닌 능력과 개인이 기능할 수 있는 맥락 사이의 상호작용 관계로서 장애를 본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박정식, 2010).

AAIDD(미국지적장애 및 발달장애학회)에 따르면, 지적장애란 지적기능과 개념적, 사회적, 실제적 적응기술이 필요한 적응행동에 대한 제한이 따르는 장애로 18세 이전에 나타난다고 하였다(Schalock, 2010). 또한 지적장애 진단기준은 3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 18세 이전이라는 연령기준은 지적장애가 발달장애로 여겨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두 번째, 지적기능의 제한으로 스텐포드-비네 검사나 웨슬러 검사 등 표준화된 일반지능검사에서 평균보다 두 표준편차 또는 그 이상으로 낮은 점수를 가리키며 보통 70점이나 그 이하의 점수에 해당된다. 세 번째, 지적기능과 적응행동의 결함이 둘 다 나타나야한다. 네 번째, 기능의 제한을 평가하고 판단할 시에는 개인의 생활맥락을 고려해야한다.

DSM-5 진단기준에 의하면, 지적장애는 발달시기에 시작되며 개념, 사회, 실용영역에서 지적기능과 적응기능에 결함이 있는 상태를 주요 기준으로 보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추리, 문제해결, 계획, 추상적사고, 판단, 학업, 경험학습 등 지적기능의 결함은 임상적평가와 개별 표준화 지능검사 모두에서 확인되어야하고, 개인의 독립성이나 사회적 책임, 발달적 문화적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적응기능의

결함이 있다. 이는 모두 발달기에 발병해야한다. 지적장애의 경우 심각도에 따라 가벼운(경도), 보통의(중등도), 심한(고도), 아주심한(최고도)로 구분하고 있다.

종합해보면, 지적장애는 전반적으로 지적능력의 저하와 사회적 적응능력의 부족함으로 환경에 적응하거나 대처하는 것이 어려움을 보인다(김보희, 2012). 그리고 감각통합기능의 결함을 가지고 있어 전반적인 운동발달이 정상적이지 못하고 동작들이 미숙하다(김동주, 고미선, 최영광, 2010). 이러한 특징들은 지적장애아동의 사회적 부적응을 초래하고 계속되는 실패경험은 아동기의 열등한 자아개념을 형성하도록 하며 새로운 관계를 맺거나 어려운 과제에 도전하는 성취욕구를 낮춘다(유아름, 김갑숙, 2016). 또한 소극적이고 자아개념 및 독립성이 약한 지적장애아동은 자기통제와 자기관리에 제한을 가지게 되고(고동완, 2003), 이는 산만하고 타인과 관계에서의 배려성 부족을 초래해 공격성이나 주의집중, 정서적, 사회적 적응의 어려움을 초래한다(신현순, 1999).

2. 놀이성

놀이란 아동의 생활 그 자체이며(최태산, 조미정, 2008), 아동의 생활은 놀이로부터 시작되고 놀이를 통해 세상을 경험하며 발달해간다(박하은, 2021). 놀이 자체가 지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아동은 놀이로써 주변세계를 인식하고 이 경험은 아동의 독립성과 온전한 발달을 가능하게 한다(안효진, 임연진, 2010). 놀이는 아동에게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를 맺고 의사소통이나 상호작용을 배울 수 있도록 돕고, 이는 대인관계 형성과 자아를 확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최미숙, 송순옥, 2013). 특히 아동은 놀이를 통해 불안을 해소하고,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며 자아의 힘을 스스로 발견해간다(Freud, 1925).

이러한 놀이를 통해 느낀 즐거움은 아동 스스로 모든 능력을 이용해 놀이에 참여하여 인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발달을 할 수 있도록 하고(교육과학기술부, 2008), 아동이 자발적으로 학습하는 경험을 할 수 있게 하며 자율성, 주도성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다(조준오, 홍광표, 2014). 놀이가 아동에게 주는 이러한 긍정적 영향으로 인해 다수의 학자들은 교수학습방법으로써 놀이를 강조하고 있다. 아동들은 각자 자신의 놀이경험이 다르고, 자주하는 놀이방식에 차이가 있다. 이는 각 아동

이 가진 놀이행동이 다르다는 의미이고 이러한 놀이행동을 발현시키는 것이 바로 놀이성이다(안효진, 임연진, 2010).

최근 놀이의 개념이 다양화되면서 놀이를 연구하는 방법도 여러 방면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그에 따라 아동이 무엇을 하는지에 초점을 두기보다 아동이 놀이에서 어떤 상황이나 만남을 경험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는 놀이의 질적인 측면을 의미하는 놀이성에 많은 관심을 가진다는 것을 시사한다(진홍신, 2000).

놀이성에 대한 개념은 많은 학자들이 정의를 내리고 있다. Barnett(1991)은 놀이행동을 일으키는 성향이나 태도로 놀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정도이고, 이러한 놀이성을 통해 유아의 발달상태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배, 김경숙(2013)의 논문에서는 놀이성을 놀이의 질적인 차이나 특징, 놀이에서 보이는 아동들의 태도를 의미한다고 했고(이배, 김경숙, 2013), Rogers(1988)에 따르면 놀이성은 아동의 놀이성향으로 개인차와 관련된 심리적인 개념이라고 정의 하였다. Boyer(1997)은 스스로 일으키는 내재적 동기이며 즐거움의 표현이라고 정의 내린다.

또한 아동의 놀이성은 아동의 신체적 자발성, 사회적 자발성, 인지적 자발성, 즐거움의 표현, 유머감각정도를 통해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Lieberman, 1965). 신체적자발성은 유아가 신체 전체나 일부분을 활발히 움직이는 정도를 의미하고, 사회적 자발성은 또래의 접근에 적절한 반응을 하고 협동적으로 놀이하며 리더의 역할을 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인지적자발성은 놀이를 할 때 유아가 주도적이고 다양한 사고를 하면서 놀잇감을 융통성 있게 사용하는 지의 정도를 뜻한다. 즐거움의 표현은 놀이 중 아동이 얼마나 기쁨이나 즐거움, 열정을 보이고 있으며 성취에 대한 만족감이나 미소, 독백, 과시 등을 얼마나 표현하는지의 정도이다. 또래 유아들과 재밌는 이야기나 농담을 하며 웃고 익살부리는 것을 좋아하는 정도를 유머감각이라고 한다(안효진, 임연진, 2010).

이러한 놀이성은 아동의 다양한 측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아동의 신체적 능력, 문제해결력, 사회적 능력을 발달시키고, 정서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을 발달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Barnett, 1991). 선행연구에 따르면, 놀이성이 아동의 창의성, 스트레스, 자기조절능력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은희, 김수향, 2016; 조미정, 최태산, 2011; 최미숙, 송순옥, 2013). 또한 놀이성이 높은 아동은 신체적으로 활동적이고 긍정적이며(Singer et al, 1980), 내적 통제력과 상호작용을 주고받는 능력이 발달해 있어 부모와 또래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상호작용

용을 경험 한다(박하은, 2021). 종합적으로 놀이성은 놀이를 이끄는 잠재적인 힘 인과 동시에 아동의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및 성격적 능력, 학습의 발달 등 다양한 부분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한다(조준오, 홍광표, 2014).

3. 지적장애아동의 놀이성

지적장애아동은 대표적으로 발달과정 동안에 지적능력과 적응행동 영역에서 개념적 및 사회적으로 실제적인 결함이 나타난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이러한 결함은 보통의 놀이발달 단계를 따라가지 못한다. 비 장애아동은 또래관계 안에서 언어나 몸짓으로 서로의 생각이나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고, 때로는 갈등을 경험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상호작용을 익히게 되는데(Hartup & Moore, 1990), 지적장애아동은 발달과정의 다양한 부분에서 발달지연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말하고 표현하는 놀이기술의 결함은 결국 부모,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제한점을 가져온다(Bundy et al., 2007).

놀이발달은 방관자적 행동과 다른 또래나 부모에게 다가가는 시도 없이 혼자서 하는 놀이에서 비롯되어 점차 인지발달과 사회성 발달을 이뤄 또래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하며 이루어나간다(Stone, Lemanek, Fishel, Fernandez & Altemeier, 1990). 하지만 지적장애아동의 놀이양상은 일반아동의 놀이와 질적인 차이를 보인다고 보다 일반아동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정신연령과 지적기능의 결함으로 놀이양상이 단순하고, 놀이를 한다기 보단 주로 탐색을 하면서 놀이 시간을 보낸다. 그리고 놀이선택의 범위가 많은 부분 제한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자폐스펙트럼아동과 달리 지적장애아동의 경우 단순한 동작의 모방이나 까꿍 놀이와 같은 사회적인 놀이의 경우 소극적인 모습은 나타날 수 있지만 불가능하진 않다. 하지만, 놀이의 지속시간이 짧고 상징놀이, 상상놀이와 같은 복잡한 놀이형태 및 습득에서 어려움을 보이며, 이러한 지속된 결함은 놀이욕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놀이집단에서 소외되고 놀이를 진행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한다(김단희, 2012). 또한 타인의 요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에 어려움이 있고, 자신이 전달하고자하는 의사를 전하지 못해 사회적으로 위축된다(홍준표, 2006).

아동은 놀이라는 매개를 통해 주변 환경을 이해하고 사회적 관계와 정서적 기능

을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 지적장애아동이 어릴 때부터 갖는 다양한 놀이경험은 그들의 성장과 발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백승국, 2003). 하지만, 지적장애아동의 경우 단순히 지능뿐만 아니라 환경과 자극에 대한 주의집중이 어렵고, 대부분 사회적 기능영역에서 심각한 저하나 일관성 있는 결함을 보이므로 의사소통의 모든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은 물론 유머나 풍자, 언어의 정교함을 이해하는데 제한이 나타난다(김은혜, 2014). 더욱이 지적장애아동은 사회적, 정서적, 인지적으로 저하되어있으며, 외부자극에 의해 들어온 감각정보를 활용하고 처리하는데 장애가 나타나 부적절한 이상반응을 보이게 되고, 이는 새로운 경험을 시도하려는 욕구가 결여되어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적다(김동주, 고미선, 최영광 2010). 이는 자발적인 놀이 활동이 이루어져야하는 놀이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지적장애아동의 경우 운동발달 영역의 경우에도 일반아동에 비해 발달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 지적인 결함이 클수록 발달은 더 지체되고, 운동 발달능력 또한 떨어질 수 밖에 없다(한동길, 김권일, 2003). 그에 반해 놀이는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등 여러 방면의 능력들을 통합하여 이뤄내는 것인 만큼 지적장애아동의 기능적 결함은 놀이발달에 어려움을 보인다.

낮은 놀이성은 지적장애아동의 발달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고, 성장하는데 필수인 놀이 활동마저 어렵게 한다(박하은, 2021). 놀이성 발달 및 의사소통의 부재로 인해 발달장애아동의 가족은 만성적인 슬픔이 지속되고 무기력한 정서상태에 빠지며, 결국 낮은 무능력감, 자기비하감을 경험한다(홍정애, 성영혜, 2007).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지적장애아동에게 있어 놀이성의 발달은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 장애아동의 놀이성 발달은 적응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장애를 최소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다(진홍신, 2003). 지적장애아동의 경우 치료의 목표가 아동의 정서 및 인지적 측면의 변화를 가장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지적장애아동의 경우 비장애인들에 비해 신체적, 운동적 발달이 부족하게 발달한다는 점(양덕일, 2013)을 미루어볼 때 추후 신체적, 운동적 측면의 변화를 돕기 위한 치료프로그램이 절실히 필요하다(문명국, 은혁기, 2022).

B. 지적장애아동과 아버지의 놀이상호작용

1. 부-자녀 간 놀이상호작용

아동에게 놀이란 삶의 전부이며 놀이를 통해 환경과 대인관계를 맺어가며 능동적인 주변세계를 탐색하고 세상과 환경의 다양한 정보를 흡수하게 된다. 부모는 아동이 태어나 처음 만나는 놀이상대로써 부모의 놀이상호작용은 아동의 놀이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Ginsburg, 2007). 또한, 부모는 아동에게 인지적, 사회적, 도덕적, 정서적, 성역할 발달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며,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아동은 전인적인 발달을 만들어 간다(임정란, 2002). 부모와 자녀가 오랜 시간 동안 상호작용적 관계를 지속하면서 보이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반응은 자녀가 적응하고 성장하는데 필수적인 자원이다(서은희, 이미숙, 2012). 이러한 부모-자녀의 놀이상호작용이란, 놀이하는 도중 부모-자녀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행동적, 언어적 상호작용을 의미 한다(Stern, 1977).

최근엔 시대가 변함에 따라 놀이에서의 부모의 역할도 변화하고 있는데, 이제껏 아동보다는 부모에게 초점화 된 학습중심 놀이신념을 가졌다면 부모는 아동 스스로 놀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놀이 동반자로서의 역할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고현, 박신희, 백지성, 2020). 이는 부모-자녀 간의 놀이상호작용은 중요하고 필수적이며 아동의 삶과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 수 있다.

이처럼 아동에게 놀이성의 발달은 부모와 긍정적 상호작용 뿐 아니라 또래와의 놀이, 의사소통을 발달시키고, 창의적인 활동들을 통해 지적능력, 사회성에 큰 도움을 준다(최윤정, 2000; 김미숙, 2001; 한미현, 2002; 장은숙, 2002). 이는 선행연구로써 아동과 부모의 놀이성 및 놀이상호작용이 중요하다는 점이 밝혀졌으며, 놀이성은 아동의 발달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아버지의 경우 자녀의 양육에 참여하는 형태가 주로 놀이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김정주, 박형신, 2017)을 미루어보아 아버지의 놀이상호작용이 아동에게 어떤 효과와 특징을 지니는지 알아보기에 적합하다.

아버지의 놀이 활동에 대한 참여는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선행연구들은 이야기 한다(Lamb, 1977; Parke, 1996). 김영덕(2016)의 연구에

따르면,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동과의 놀이 활동 시 그 유형이 다르고 그에 따른 효과 또한 다르며, 아동은 놀이참여 양상이 다른 아버지와 어머니의 놀이로부터 각각 다른 자극을 받는다(김선희, 2013; Lamb, 1977).

구체적으로, 아동에게 어떤 것들을 교육하려는 양상들이 많은 어머니에 비해 아버지는 더 활동적이고 자극적인 신체놀이를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배미경, 김용미, 2016). 이와 더불어 Lamb(1997)는 아버지와 아동, 어머니와 아동의 놀이 상호작용에 대해 각각 관찰해본 결과, 자녀를 들어 올리는 것을 예로 들며 아버지와 어머니가 들어 올리는 각각의 이유와 목적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냈다. 먼저 어머니는 아동을 양육적인 이유로 돌봄을 위해 들어 올렸고, 아버지는 놀이를 하기위해 아동을 안았다. 즉. 어머니의 경우 아동의 돌봄 및 양육의 목적으로 놀이 상호작용을 하였고, 아버지는 신체놀이를 통해 신나게 놀기 위한 놀이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어머니는 놀이 또한 교육적인 목적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비교적 언어적인 상호작용과 지시적 놀이, 구성놀이를 자주 하였고, 아버지는 아동과 더 밀접한 신체적 자극을 주는 놀이형태를 통해 아동에게 더욱 자극적이고 활동적인 놀이를 할 수 있게 도왔으며, 아동에게 다양한 도전을 해낼 수 있도록 촉진해주었다(송은혜, 2008). 어머니에 비하면 아버지가 자녀에 대한 민감감과 양육역량 등은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아버지의 활발하고 신체적인 놀이성이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며 아동의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오지현, 임시형, 2018), 이는 결국, 아버지의 놀이 속에는 아동발달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부분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Roggman, 2004). 이러한 자극적이고 활동적인 아버지 놀이의 특징과 연관 지어 거친 신체놀이를 이야기해볼 수 있다.

거친 신체놀이란, 공격성과 폭력성이 나타나지 않는 놀이(Pellegrini & Smith, 1998)로써 즐거움과 웃음이 유발되고 경쟁적이지 않은 놀이 상황 속에서 집중과 몰입을 경험한다. 또한 다양한 등장인물, 사건, 스토리 등의 상상력을 펼치고 자유로운 놀이상황 속 긍정적 정서가 일어난다는 것이 특징이다(김상겸, 2022). 이러한 거친 신체놀이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이 많아 공격적 놀이와 같은 것으로 착각하게 되는데 두 놀이는 분명하게 다른 놀이이다. 거친 신체놀이를 즐기는 아동은 신체적인 공격성이 굉장히 낮았고, 놀이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언어를 통해 상황에 맞게 사용하였으며,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언어적 공격성도 함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미숙, 송순옥, 2013). 또한 신체적 에너지의 발산은 아동의 스트레스와 문제행동을 조절할 수 있게 했고(나상미, 김혜

순, 2011), 자기조절력과 문제해결력의 증진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고여훈, 엄정애, 2014).

거친 신체놀이에 대한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거친 신체놀이는 아동에게 사회성, 또래관계, 공격성 부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김상겸, 2022). 거친 신체놀이는 신체 운동적인 요소와 상상놀이가 함께 이루어진 형태의 놀이로 공격성이 나타나지 않고, 경쟁적 요소와 정해진 규칙이 없기 때문에 (Pellegrini & Smith, 1998) 사회, 정서적 발달을 넘어 신체, 인지, 언어적 발달 등 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놀이로 이해할 수 있다(Fletcher et al., 2013).

아버지의 거친 신체놀이는 어머니에 비해 신체적 자극이 강하고 거칠며, 독특한 놀이를 통한 상호작용이 많이 일어나고, 놀이에서 좀 더 신체적이며 적극적인 형태의 상호작용을 많이 생산 한다(Lamb, 1986). 특히, 박은혜(2015)의 연구에 따르면 거친 신체놀이에 대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인식차이가 존재한다. 어머니는 거친 신체놀이의 일부행동을 금지했지만 아버지는 안전에 유의하며 놀도록 거친 신체놀이를 허용하는 비율이 높았다는 결과는 아버지와 놀이가 아동에게 더욱 자주, 깊은 신체발달과 에너지방출의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어머니 보다 아버지가 아동에게 거친 신체놀이로써 더 많은 자극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버지가 지닌 놀이상호작용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시라고 할 수 있다.

2. 지적장애아동과 아버지의 놀이상호작용

지적장애아동의 경우 자기 스스로를 돌보거나 기본적인 권리행사의 능력이 다른 장애유형과 달리 어렵기 때문에 부모나 가족이 모든 돌봄을 도맡아 해야 하며(이은미, 백은령, 2010), 지적장애아동의 경우 성인이 되어서도 장애로 인한 어려움이 쉽게 감소되지 않아 지속적인 가족들의 지원이 필요하다(조향숙, 옥수선, 2017). 평생 이러한 장애로 인한 어려움들은 지적장애자녀를 둔 부모 및 가족에게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지적장애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경험을 살펴보면, 어머니를 초점으로 한 연구들이 많다. 지적장애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대부분 주 양육자가 어머니이기 때문이다(최선경, 2004). 하지만, 어머니에게 초점이 맞추어진 지적장애아동의 양육과 교

육들은 어머니들을 더욱 힘들고 지치게 만든다. 이은미, 백은령(2010)의 연구에서는 지적장애아동의 치료와 돌봄이 온전히 엄마와 아이만의 문제로 인식되어 결국 ‘엄마 혼자 싸우는 싸움’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고, 장애아가 태어난 것이 엄마의 책임이라는 가족의 따가운 시선과, 엄마 스스로가 느끼는 죄의식 등은 장애아의 치료에 매달리게 만든다고 하였다(이은미, 백은령, 2010 재인용).

또한 장애아동 부모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홍정숙, 표윤희, 2018; 김교연, 2010; 김예리, 박지연, 2017; 김영준, 강영심, 2013), 이는 장애아동 및 지적장애아동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대상은 어머니(정갑순, 2005)라는 인식이 강한 것에 힘을 실을 수 있다. 자녀양육이나 교육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이 어머니에게 쏠려있는 경향이 있고, 이로 인해 어머니는 아동의 장애로 인한 스트레스, 우울 등 신체적, 심리적인 고통들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어머니의 높은 스트레스 수준은 지적장애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대처방법이나 양육태도에도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어머니가 홀로 장애아동 및 지적장애아동의 교육과 양육을 책임지게 하는 것이 아닌 장애아동을 둘러싼 모든 자원들이 함께 지적장애아동의 교육과 양육에 힘써야한다(김한나, 정은희, 2013). 최근엔 어머니 못지않게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연구들에도 관심이 많다.

아버지 놀이상호작용의 경우, 어머니와 달리 신체적 자극이 강하고 거칠며 놀이 상호작용의 독특성이 특징이며(Lamb, 1986), 이는 신체놀이를 주로 사용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아버지 놀이상호작용의 특징은 언어적 기능에 결합이 있는 지적장애아동에게 언어를 주로 사용하는 어머니의 놀이보다 자기조절과 사회성에서 효과적이다(송은혜, 2008). 특히 아버지의 놀이상호작용의 특징을 지닌 거친 신체놀이의 경우는 신체, 언어기능의 결합, 지적능력과 사회적 적응행동의 결합으로 인해 사회성 발달 및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가지고, 이러한 결합이 생활반경의 지속적인 실패를 주어 결국 문제행동을 초래할 수 있는 지적장애아동에게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추론해볼 수 있다. 또한 사회적 능력은 신체개념과 신체에 대한 느낌을 통해 발달하는 것으로, 아동 스스로의 다양한 신체인식 정도가 사회적 능력과 관련된다고 하였다(이숙정, 2011). 이러한 주장은 신체적, 운동적인 기능의 저하를 가진 지적장애 아동에게도 체계적이고 다양한 신체활동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거친 신체놀이를 비롯한 신체놀이들은 아동이 또래나 부모의 행동을 모방하고, 또래와 부모에게 놀이를 제안하며, 신체적인 능력과 함께 가상적 상

황, 상상놀이가 혼합되어 이루어지는 놀이 양상을 보인다(고여훈, 엄정애, 2010). 이는 언어적인 능력에 한계를 가지며, 인지적인 결함으로 가상놀이나 상상놀이가 어려운 지적장애아동에게 놀이 발달적으로 굉장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버지와의 거친 신체놀이 및 신체놀이는 사회적 상황 및 또래관계에서 위축되고 자신감이 부족한 지적장애아동에게 자신의 신체를 자유롭게 느끼고 움직여보는 경험을 촉진해준다. 특히, 잡기놀이와 도망치기와 같은 거친 신체놀이의 경우 단순하고 어렵지 않아서 지적장애아동이 하기에도 적합하며, 성공적으로 상대를 자연스럽고 놀이상황에 끌어들이는 특징은 아동에게 자연스러운 신체접촉과 상호작용을 경험하게 해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렇게 다양한 느낌과 감각에 집중하고 자발적인 활동들을 증가하는 과정은 정서적 안정감이 바탕이 되어야하며(김단희, 2012), 이는 가족인 아버지로부터 충족되어 점차 확장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처럼 아버지와 지적장애아동의 놀이상호작용은 어렵지 않게 행할 수 있는 신체적, 활동적인 놀이들을 통해 상호작용의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며, 아버지에게도 장애아동과 함께 놀이시간을 가지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줄 것이다.

Bigner(1979)는 아이를 안아주는 상황에서도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동에게 주는 자극은 다르다고 했다. 어머니의 경우 돌봄과 아기행동 통제를 위해 안아주지만, 아버지는 놀아주기 위해 안아준다고 보았고, 부모의 놀이형태 또한 다르다고 보았다. 이는 부모의 역할은 각각 다르게 아동에게 영향을 주고 있으며 어느 한쪽의 역할만 중요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김복선, 2011). 그렇기에 지적장애아동과 아버지의 놀이상호작용이 증가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역할을 많이 행한다는 뜻이고 이는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아버지의 양육참여의 증가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이 되고, 특히 어머니의 역할 부담감의 영역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도경민, 이희영, 2019). 이러한 선행연구는 지적장애아동과 아버지의 놀이상호작용이 증가한다면, 가족 전체의 기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C. 지적장애아동의 부-자 치료놀이

1. 부-자 치료놀이

a. 치료놀이 (Theraplay)

치료놀이는 애착이론을 기초로 하여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를 모델로 삼고, 아동의 애착과 관계발달에 중점을 둔 개입적인 치료 프로그램이다. 치료놀이의 경우 영아부터 청소년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아동에게 효과적이라는 치료효과가 있지만, 대부분 18개월에서 12세 사이의 아동들에게 실시된다(Jernberg & Booth, 2011). 치료놀이는 초기에 정서문제, 행동문제, 관계의 어려움을 가진 비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점점 조절문제, 발달장애아동, 신체장애아동 등으로 폭넓게 적용되고 있다(Jernberg & Booth, 1999).

Guerney(1984)에 따르면, 치료놀이는 아동과 치료사 상호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치료자가 주도하여 진행하는 접촉놀이이기 때문에 치료놀이를 지시적인 방법의 치료로 분류하였다. 접촉은 인간에게 신체적 자아, 심리적 자아를 형성하도록 북돋기 때문에 건강한 접촉과 건강한 관계형성은 인간이 다채롭고 풍요로운 삶을 살도록 돕는데 필요한 부분이다(Jernberg & Booth, 1999). 이처럼 치료놀이는 신체적 접촉을 중심으로 즐겁고 재미있으며 자연스럽게 자발적인 활동을 통해 융통성을 가지며 과정중심적인 특징이 있다(Hughes, 1995).

여기-지금(Here and Now)의 경험에 관심을 둔다는 점도 중요한 부분이다. 또한 치료놀이는 장난감을 사용하지 않으며, 비언어적이고 치료자의 주도로 놀이 활동이 이루어진다.

치료놀이는 민감하고 반응적인 양육과 재밌는 상호작용이 함께 되었을 때 아동의 두뇌를 자극하여 발달시키고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내적표상을 형성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치료놀이의 목표는 아동과 주 양육자가 서로 안전하고 조율된 환경에서 즐거운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치료놀이에서 치료자는 부모에게 아동이 필요한 욕구에 맞는 반응을 적절히 할 수 있도록 돕고, 부모의 양육경험이나 태도를 곱씹어보게 하여 부모가 안전하고 협동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적극적인 역

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치료놀이는 보통 한 회기당 30~45분 일주일에 한번 시행하며, 사정, 치료, 추후점검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치료놀이는 내담자의 욕구와 필요한 개입을 미리 파악하고 구조화하여 진행하는 치료로써 4가지 차원인 구조, 개입, 양육, 도전으로 이루어진다.

구조는 아동이 신뢰할만하고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안전한 구조적 환경과 조절 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아동의 환경이 안전하다고 구조화가 되면 신체적, 정서적으로 안전을 느낄 뿐 아니라 자신의 환경을 인식할 수 있으며 스스로의 조절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다. 구조적 개입은 과잉행동으로 산만하거나 흥분하는 아동들에게 중요하며 통제 불안을 가진 아동들에게도 도움이 된다(Jernberg & Booth, 2011).

개입은 아동에게 정서적인 개입을 이끌어 내주는 즐거운 놀이라고 할 수 있다. 개입은 아동에게 재밌고, 자극적이며 개입적으로 아동의 긍정적인 자기이미지를 형성시킬 수 있고, 이는 아동이 스스로 자신은 특별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개입적 차원은 위축되거나 놀이, 접촉을 피하며 경직된 모습을 가진 아동이나 엄격한 구조화를 가진 아동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며, 자녀와 함께 놀 줄 모르는 부모들에게 효과적이다(Jernberg & Booth, 2011).

양육은 먹여주기, 흔들어주기, 안아주기, 달래기와 같은 양육적인 활동들로 이루어져있다. 이는 부모나 치료사가 아동의 욕구를 파악하고 이해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으며, 애착과 통제욕구가 필요한 아동에게 양육적 개입은 따뜻하고 편안하며 보살핌의 경험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즉, 부모는 안전한 피신처를 제공하고 아동이 자기가치를 생성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해준다. 양육적 개입은 접촉이나 애정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에게 도움이 되고, 편안함과 애정적인 욕구를 원하는 아동에게 거부적이거나 처벌적인 양상을 보이는 부모에게 어떤 식으로 아동에게 반응하면 될지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한다(Jernberg & Booth, 2011).

도전은 아동에게 안전함을 제공하면서 아동이 스스로 노력해보고, 위험을 이겨내며 탐험해볼 수 있도록 돕는다. 이는 아동이 자신감을 느끼고 성취를 즐기고 이겨낼 수 있도록 격려한다. 도전적인 활동은 위축되거나 수줍고 소심하고 불안한 아동들에게 도움이 되며, 아동을 너무 과잉보호하거나 경쟁적인 부모들에게 도움이 된다(Jernberg & Booth, 2011).

치료놀이에선 아동의 행동에 관심을 가지며 주의를 기울이고, 아동의 특징적인

발달적 욕구에 반응하고 충족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치료를 계획해야한다.

b. 부-자 치료놀이

선행연구에 따르면,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장애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가족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홍정애, 성영혜, 2007). 하지만 아버지의 경우 자녀와 얼마만큼의 시간을 보내야하는지, 또 그 시간동안 어떻게 상호작용을 해야 하는지, 자녀가 정서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되며 관계맺음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될지에 대한 이해와 직접적인 양육방법에 대해선 자세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자녀와 아버지 간 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정보제공과 프로그램들이 절실히 요구되어지고 있다(홍정애, 성영혜, 2007). 이러한 아버지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가족치료놀이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가족치료놀이는 치료놀이 중 하나의 형태로 부모와 자녀가 같이 참여할 수 있다. 가족치료놀이의 목적은 애착 재형성, 자아존중감 향상, 타인에 대한 신뢰 및 즐거운 참여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는 부모가 자녀에게 긍정적이고 공감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자녀의 욕구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충족되지 못한 부모의 욕구가 자녀에게 부모로서 역할을 할 시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도와준다(Jernberg & Booth, 1999).

가족치료놀이가 주는 이러한 장점들은 어머니에 비해 섬세함이 부족한 아버지에게 자녀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아버지의 능력을 향상시켜 함께하는 재밌는 놀이를 통해 공감적인 행동이 훈습됨으로써 부-자 간 상호작용 패턴이 바뀔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또한, 가족치료놀이의 목적달성을 위해선 부모, 자녀가 함께 재미를 바탕으로 신체적이고 자연스러운 접촉을 하며 즐거운 놀이 상호작용을 하게 되고, 이는 부모-자녀 간 건강한 관계를 회복시키고 향상시킬 수 있다고 했다(권은희, 2009). 아버지와의 놀이는 어머니와 달리 신체적 자극이 강하고 거칠다는 것, 신체놀이를 주로 한다는 특징(Lamb, 1986)과 맥을 같이하여, 신체적이고 자연스러운 접촉을 위주로 하는 치료놀이가 부-자 간 관계에 굉장히 긍정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2. 지적장애아동의 부-자 치료놀이

치료놀이란, 부모-자녀의 애착이론을 기반으로 부모-자녀 간의 민감하고 반응적이며 재밌는 상호작용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개념적인 정의에 따르면, 놀이상호작용과 치료놀이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뜻이고, 선행 연구에 따르면 치료놀이의 개입은 발달장애아동에게 효과적이다(백효정, 2021). Jernberg(2011)는 발달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치료놀이를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함께 참여하기’라고 말했다. 이는 발달장애아동을 지속적으로 상호작용의 세계로 이끌라는 것이고, 이는 성인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성인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개입을 중요시하는 치료놀이 프로그램과 더불어 Pole, Bruyn과 Ross(1995)은 아동의 놀이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선 성인의 개입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성인의 놀이성은 아동과의 상호작용과 아동의 발달향상에 큰 영향을 미치며(박현숙, 2003), 아동은 성인과 함께하는 놀이를 통해 다방면에서 도움을 받기도 한다(Fein, 1985). 대표적으로, 아동은 성인의 놀이에 의지하며 몰입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고, 성인의 놀이 속 행동과 모습은 아동에게 모방의 대상이 되어 아동의 놀이를 정교화 시키고 높은 수준의 놀이를 가능하게 한다고 했다. 이처럼 아동의 발달에 성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 이는 치료놀이가 아동의 놀이성의 향상 또한 도울 수 있다는 것에 힘을 실어준다.

지적장애아동의 경우 운동기능 및 신체적인 결함도 가지고 있어 자세가 불안정하거나 신체의 사용에서 비정상적인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는 전정감각과 고유수용성 감각 등 감각기관의 지나친 민감 또는 둔감이 원인으로 작용한다(김세영, 2021). 본인 신체의 감각을 적절하게 못 느끼기 때문에 강한 자극을 추구해가며 자기의 신체를 인식하고자하는 것으로 지적장애아동의 입장에선 자연스러운 본성의 욕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발달장애아동의 신체감각이상은 각 아동에게 맞는 몸 놀이를 통해 통합을 이루게 된다. 그중에서도 즐거운 몸 놀이가 되어야하기에 친밀한 대상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이유다. 발달장애아동의 감각이상은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조정과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상에서 수시로 아이들을 도와주고 케어해줄 보호자의 도움이 필수적이다(김세영, 2021). 이러한 연구는 즐거운 몸 놀이를 적극적으로 해줄 수 있으며 수시로 돌봄 가능한 대상으로써 가족인 아버지

의 역할을 중요하게 시사한다.

아버지와 놀이는 신체적 자극이 강하며 창의적인 놀이 활동과 적극적 양상의 상호작용이 빈번한 것이 특징이다(Lamb, 1986; Parke, 1981; 박은혜, 2015). 이러한 아버지의 놀이적 장점은 몸 놀이, 신체 놀이가 감각적 발달을 위해 중요한 지적장애아동에게 더욱 재미있고, 편안한 개입으로써 다가올 수 있고, 가족으로써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관계라는 점에서 지적장애아동에게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상호작용적인 개입이 중요한 치료놀이는 아버지와 아동이 함께 즐겁고 안전한 놀이경험을 할 수 있도록 만남의 장이 되어줄 수 있을 것이다(김세영, 2015). 치료 계획이 구조화 되어있고, 성인주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적장애아동에게 적합한 감각적 개입과 상호작용적인 활동들을 아동과 아버지에게 제공해 줄 수 있으며, 장애아동에 대한 이해나 자녀와의 의사소통, 어떻게 놀이를 진행해야할지 파악에 어려움이 있는 아버지에게 지적장애를 지닌 자녀의 욕구나 소통방식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신체적 접촉을 중시하는 치료놀이에선 몸 놀이와 거친 신체놀이의 적용이 가능해짐으로써 아버지의 신체적이고, 거칠고, 적극적인 놀이형태는 치료놀이프로그램에서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것이며, 지적장애아동의 특징 및 필요한 개입에 따라 구조화하여 진행하는 치료놀이프로그램의 참여는 아버지의 놀이상호작용을 증진시킬 수 있다. 더불어 인지기능과 신체기능, 적응기능의 결함을 보이는 지적장애아동에게 비언어적이고, 참여하기에 어렵지 않은 신체 놀이 즉, 신체놀이를 적절하게 적용 가능한 치료놀이는 지적장애아동의 놀이성 또한 증진시킬 것이다.

Ⅲ. 연구방법

A. 질적사례연구

질적 연구는 상황 자체의 깊은 이해를 추구하며, 연구과정 중 찾아낸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과 현상을 연구자의 주관적인 해석에 근본을 두고 그에 대한 의미를 연구 한다(Yin, 2011). 또한 연구 참여자에게는 연구과정 중 어떠한 조치나 강요, 통제 없이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이를 탐구하는 것을 중요시 한다(김영석, 김한별, 유기웅, 정종원, 2012). 질적 연구는 다양한 분석 방법이 존재하는데 어떤 분석방법을 사용하는지에 따라 현상의 다른 측면에 집중하게 된다(한유리, 2018). 질적 연구 방법으로는 내러티브 연구, 현상학적 연구, 사례연구, 근거이론 연구 등 여러 분야로 나뉘게 되는데(Creswell, 2007), 본 연구는 질적사례연구를 채택했다.

질적사례연구는 사례에 대한 깊이 있는 관찰과 분석을 지향한다. 연구에 적합한 사람이나 문제, 상황을 어떠한 공간이나 시간의 흐름 속에서 깊이 있는 탐구를 통해 현상이 가진 독특한 원인과 맥락을 연구한다(김윤옥 외, 2009). 즉, 주요한 맥락 안에서 경계 지어진 사례의 특수성과 복잡성을 분석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 된다(Merriam, 2009; Stake, 1995; Yin, 2003). 이는 부-자 치료놀이에 참여한 지적장애 아동과 아버지 사례에서 아버지의 상호작용 변화과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과 부합한다.

질적사례연구는 다중사례와 단일사례 연구로도 구분되는데 본 연구는 특정 사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거나 인터뷰한 자료를 수집하여 탐색하는 단일사례연구방법론을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부-자 치료놀이에 참여한 아버지의 상호작용 변화과정과 아버지가 참여하면서 떠오른 생각과 감정 등의 역동을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의미를 발견해 내고자 하였다. 즉, 본 연구는 질적사례연구방법론을 적용하여 부-자 치료놀이에 참여한 아버지의 변화과정과 무엇이 아버지의 변화로 이끄는지 그리고 그 변화의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B. 연구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언어발달장애를 동반한 지적장애 8세 남아와 42세 아버지이다. 아동은 5세 때, 중증 지적장애 진단을 받았다. 프로그램 시작 전 아동의 발달적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발달평가(교육진단검사, 사회성숙도검사, 자유놀이평가)를 진행했다. 아동은 신체 및 운동발달의 지체가 두드러졌는데 그 예로 침을 많이 흘렸으며, 기저귀를 착용하였다. “아빠, 주씨여” 외에 표현언어는 가능하지 않았고,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울음을 터뜨리는 모습을 보였다. 신체 및 감정조절 능력의 지체로 인해 쉽게 흥분되고 과잉행동을 보였다. 예를 들면, 제자리에서 뛰거나 손을 허공에서 흔드는 모습이 자주 나타났다.

교육진단검사 결과 아동의 발달연령은 10개월이었으며 지각, 소근육 운동, 동작성 인지영역에서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아동은 외부자극에 대체로 반응을 보였지만 지속시간이 길지 않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놀이나 움직임만 지속하는 모습을 보였다. 검사과제 중 실시하는 방법은 알고 있지만 소근육 발달의 지체로 실패한 반응들이 다수 있었으며, 주의집중과 문제해결능력이 필요한 문항에 특히 어려움을 보였다. 사회성숙도 검사 결과 아동의 사회성 지수는 37로 중중도 수준의 지체로 파악된다. 이동영역이 2세, 의사소통영역은 1세 수준으로 나타나 자조기술과 상호작용 영역에서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놀이평가에서 아동은 스스로 원하는 장난감을 선택하지만 기능적인 놀이로 이어지지 못했고 놀이의 지속시간이 짧았다. 주사기나 컵 등 사용방법을 아는 장난감에 한하여 사용하는 모습을 재현하기도 했다. 가상놀이나 상징놀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주로 장난감을 만지거나 꺼내는 등 탐색수준의 놀이를 주로 하였다. 평가 시 줄곧 끄끙 앓는 소리를 내며 제자리에서 뛰거나 박수를 치는 행동, 허공에 손가락들을 움직이는 상동행동이 많이 나타났고, 표정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아동 혼자 놀이하는 양상이 두드러지거나 부의 지시 및 제안에 대부분 반응하였고, 부의 행동을 모방하는 것도 가능했다.

연구에 참여한 아버지는 어린 시절부터 혼자 노는 것에 익숙하다고 하였다. 부모님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지 않았고, 부모님과 즐겁고 유쾌했던 경험에 대해 기억해 내지 못했다. 중,고등학교 시기에도 또래와의 즐거운 경험은 빈약했다.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겼지만 대부분 새벽에 출근을 하고, 주간과 야간 일을 번갈아하며 쉬는 날도 거의 없이 일을 하였다. 이로 인해 아이와 함께하는 날은 손에 꼽힌다.

간혹 집에서 쉬는 날은 주로 잠을 자고 TV를 보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아이와는 훈육과 학습이 기반이 되는 상호작용이 주였다. 아버지는 지적장애가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더 많이 알려주고 가르쳐줘야 한다는 생각이 더 컸다. 그러던 중 어린이집에서 본 연구 참여에 대한 안내를 받았을 때 지적장애가 있는 내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놀이를 배울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신청을 하였다. 아버지는 유일하게 쉬는 날인 토요일 오후를 아이와 함께 하고자 하는 적극성을 보였다. 이러한 아버지의 높은 관심과 능동적인 태도는 질적사례연구의 사례선정 과정에서 가장 우선시하는 기준이다(Stake, 1995; Yin, 2009). 이를 근거로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고 동의를 받은 후 연구절차를 진행하였다.

C. 연구절차 및 자료수집

사례연구는 연구자가 사례에 대해 깊이 있게 다가가고 사례를 이루는 요인들을 자세히 탐색하기 위해 복합적인 정보를 필요로 한다(VanWynsberghe & Khan, 2007). 사례에서의 총체적 이해를 위해서 양적자료(Baxter & Jack, 2008)와 질적자료를 모두 확보하는 것은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절차와 자료수집 방법은 3단계로 진행했다.

1단계는 장애아동 어린이집 및 통합어린이집에 연락하여 연구 목적과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 후 메일을 통해 연구 참여자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이에 자발적으로 참여를 원하는 아버지와 비대면 사전면담을 통해 본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 및 기대감을 파악했으며, 연구절차 및 부-자 치료놀이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2단계는 연구 참여자가 상담센터에 방문하여 연구자와 아동, 아버지는 첫 만남을 가졌다. 약 2시간 동안 아동의 교육진단검사(PEP-R), 사회성숙도검사(SMS), 자유놀이평가, 부-자녀 상호작용 평가(MIM), 부의 양육태도검사(PAT), 접수면담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검사결과를 통해 연구자는 부-자 치료놀이의 목표와 전략을 계획하였다. 부-자 치료놀이는 총 10회기, 40분씩 진행하였으며 매 회기 프로그램이 끝난 후 부와의 면담이 함께 진행되었다. 본 연구자가 프로그램을 직접 진행하였고 놀이심리상담 전문가를 통해 매 회기 지도감독을 받았다. 또한 연구자는 회기가 끝

난 후 촬영된 영상과 매 회기 진행된 아버지 면담 녹음본을 전사하여 연구의 주 분석자료로써 사용하였다. 전사 시 참여자의 상호작용 변화과정을 집중적으로 탐색하기 위해 언어적, 비언어적 요소(행동, 목소리 톤과 억양, 얼굴의 표정, 제스처, 놀이 등)를 최대한 풍부하게 전사하려고 노력하였다. 질적분석에서 아버지 상호작용의 변화과정을 전반적으로 전망하고 참여자의 관점에서 조망하기 위해 슈퍼비전 내용, 연구자와 아버지의 성찰일지도 함께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3단계는 10회기 부-자 치료놀이 프로그램을 종결하고 3주 후 연구참여자가 심리상담센터로 재방문하였다. 상호작용 변화를 분석하는데 활용하기 위해 사후 부-자녀 상호작용 평가(MIM), 자유놀이평가를 진행하였다.

D. 부-자 치료놀이 계획

1) 부-자 상호작용 특징 분석

본 연구 참여자인 아버지와 아동의 상호작용 특징을 분석하여 부-자 치료놀이 목표와 개입전략을 도출하고자 교육진단검사(PEP-R), 사회성숙도검사(SMS), 자유놀이평가, 부-자녀 상호작용 평가(MIM), 부의 양육태도검사(PAT), 접수면담을 실시하였고 종합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는 지시적인 의사소통과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상호작용이 많았으며 아동 또한 반응이 적어 부-자 간 상호작용이 지속되기 어려웠다. 예를들면, MIM 평가 시 아버지는 놀이과제에서 “이거 해, 이거 해야지 집에 갈 수 있어” 등의 지시적인 방법으로 아동과 상호작용하는 모습이 많이 나타났다. 특히나 아동이 집중하지 못하고 자리를 이탈했을 때 몸으로 아동을 막거나 “이거 다하면 핸드폰 줄게. 조금만 하자”라고 반응을 하며 통제하기에 바쁜 아버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자유놀이평가 장면에서 아동이 장난감을 선택하고 아버지 앞에 가져왔을 때 아버지는 장난감 명칭을 가르쳐 주었고 기능적인 방법을 알려주는 상호작용이 빈번했다. 아버지는 아동과 어떻게 놀이해야 할지 몰랐고, 지적장애가 있는 아동이기 때문에 훈육과 학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지시적이고 통제적인 반응들이 주로 나타났던 것으로 추측된다. 아버지 PAT 결과 처벌과 성취압력, 과잉기대

가 매우 높은 것과는 맥을 같이한다. 즉, 아버지는 아동이 놀이 활동에 재미를 느끼고 집중할 수 있도록 적절한 개입을 하지 못했고, 아동 또한 의사소통이나 기능적인 놀이를 지속하는데 한계가 있어 부-자 놀이상호작용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판단된다. 아동은 흥미를 보인 활동에서도 아버지가 지시하거나 통제를 하면 그에 반응을 보이며 따라가는 양상을 보였는데,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아버지와 함께하는 놀이의 즐거움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아버지는 아동과 놀이가 자연스럽게 못했고 접촉 또한 적었다. 지적장애로 인해 놀이 지속이 짧고, 반응이나 흥미를 보이지 않는 아동과 아버지는 어떻게 놀이해야할지 몰라 아동에게 놀이를 제안하는 정도에서 그쳤고, 활동들을 계속 전환하려는 모습으로 드러났다. 자유놀이평가에서 아버지는 자리이동을 많이 하지 않은 채 정적인 놀이를 주로 하였고, 아동의 행동에 적절한 반응을 보이지 못했다. 아버지는 아동의 발달수준에 따라 지속적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북돋았지만 따스한 접촉이나 격려, 칭찬에는 인색했다. 예시로 MIM 평가에서 아버지는 아동과의 애정적인 접촉이 많지 않았으며, 대부분이 통제, 지시를 위한 접촉이거나, 침 닦아주기 등의 돌봄을 위한 접촉이 주로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특징들을 미루어볼 때 아버지는 애정적이고 공감적인 상호작용에 취약함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아버지의 PAT 검사에서 지지표현이 굉장히 낮다는 결과와도 맥을 같이한다.

셋째, 아버지는 감정표현이나 표정이 다양하지 못했고, 아동 또한 표정이나 비언어적 표현이 빈번하지 않았다. 아동은 각성행동을 많이 보였으며, 아버지는 익숙한 듯이 크게 반응하지 않고 과제진행과 지시, 통제하는데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아동과 아버지 모두 즐거운 놀이 상호작용이 이어지지 않으니 표정은 항상 무표정이었으며, 서로 눈 맞춤도 많지 않았다. 아버지는 MIM, 자유놀이평가 내내 목소리 톤이 일정하였으며, 놀이가 즐겁지 않아 보이고 평가를 위해 진행하는 의무적인 활동처럼 보였다. 예시를 들어 접수면담에서 아버지가 “말이 안 통하니까 뭘 해야할지 모르겠고 반응이 없으니 놀이를 어떻게 해나가야할지 막막해서 결국은 놀이를 안하게 돼요.”라는 대답은 언어적 소통을 중요시하는 아버지가 아동에게 해주는 건 최소한의 양육, 통제만 계속되다보니 자연스레 부자 사이의 감정표현이나 표정이 감소했을 것으로 추론된다.

2) 부-자 치료놀이 개입전략

부-자 치료놀이 프로그램은 네 가지 기본원리가 모두 포함된 상호작용과 놀이활동이 진행되지만 앞서 부-자녀 상호작용 특징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양육’, ‘개입’ 원리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참여자인 아버지와 아동의 상호작용을 증진하고자 하며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아동과의 놀이 상호작용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아버지가 아동의 욕구와 표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애정적, 공감적 태도가 증가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표를 설정하였다.

부-자 치료놀이에서 아버지에 대한 구체적인 개입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긍정적인 관계 경험을 제공한다. 아버지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와 애정적인 관계경험이 빈약했고 아동에게도 긍정적 양육태도가 적은 편이다. 양육 원리가 포함된 놀이 활동과 더불어 치료자(연구자)가 아버지에게 공감과 격려반응을 지속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아버지가 아동, 치료자와 긍정적인 관계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둘째, 아버지의 애정적 양육태도와 긍정적 표현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한다. 부-자 상호작용에서 아버지는 아동에게 격려와 칭찬, 애정적 양육태도가 부족했다.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아동과의 접촉을 늘리고, 치료자의 격려 및 공감 반응을 모델링 할 수 있게 한다. 이를 통해 부-자 치료놀이에 대한 동기와 이해를 도모하도록 한다. 셋째, 지적장애아동과 함께 놀이하는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아버지에게 놀이는 학습을 위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아동과 즐거운 놀이 상호작용은 막막했다. 아버지는 아동의 발달과 욕구 수준에 적합한 놀이를 직접 경험하고, 치료자는 부모상담을 통해 집에서도 활용 가능한 놀이 활동을 안내해줌으로써 부-자녀 간 놀이 상호작용을 증진할 수 있게 돕는다.

부-자 치료놀이에서 아동에 대한 구체적인 개입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와 아동의 관계 증진을 통해 아버지를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주로 통제와 지시, 체벌을 하는 아버지는 아동이 유일하게 고집을 부리지 않는 대상이다. 이는 아버지에 대한 무서움이 내재되어 더욱 편하게 다가가지 못했을 것이라 추측된다. 이를 위해 양육 원리가 포함된 놀이를 통해 애정적인 접촉을 경험하도록 하고, 아동이 아버지와 아동의 관계에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아버지와 함께 하는 즐거움을 경험하도록 한다. 지적장애로 인해 사회적 상호작용의 시작이 어렵고 지속이 짧은 아동에게 개입 원리가 포함된 놀이는 아버지와 함께 하는 즐거움

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다. 셋째, 각성수준이 높은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한다. 성인주도의 구조화된 환경은 아동이 안정적으로 조절되는 외재적역할을 하고 이는 아동이 아버지와 상호작용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3) 부-자 치료놀이 프로그램 개요

본 연구는 앞서 제시한 연구참여자의 상호작용 특징을 기반으로 부-자 치료놀이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였고, 개입전략을 세웠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목적에 부합하는 회기별 목표 및 치료놀이 원리와 활동내용은 <표 1>과 같다.

치료놀이는 회기 중 시작단계, 본 활동 단계, 마무리 활동 단계로 구분이 된다(성영혜, 2000). 시작단계는 인사하기와 점검하기(check-up)로 구성되는데 인사하기의 목적은 치료놀이 활동의 시작을 알림과 동시에 아동에게 반가움을 전하기 위함이다(Jernberg & Booth, 1999). 본 프로그램에서는 연구참여자인 아버지와 아동의 특성을 반영하여 인사만들기 활동을 시작단계에 활용하였다. 점검하기는 지난 회기와 연결지며 아동에게 지속성의 느낌을 갖도록 하기 위함으로 아동을 주의깊게 살피며 성장하고 있음을 전하기 위함이다(Jernberg & Booth, 1999). 본 프로그램은 시작인사와 함께 서로의 장점 및 특징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본 활동단계는 본 프로그램 개입 전략을 바탕으로 치료놀이의 ‘구조, 양육, 도전, 개입’ 원리를 구성하고 이에 적합한 놀이활동을 계획하였다. 마무리 활동 단계는 각 회기마다 했던 활동에 대해 상기하고 소감을 나누며 다음 회기를 약속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표 1>

회기	목표	활동내용 및 원리
1회기	라포 형성	1. 시작활동: 시작인사하기(구조) 2. 본활동: 누구는 어디있나(개입, 양육), 동글게 동글게(개입), 비눗방울 불어 터뜨리기(개입, 도전), 풍선 불어 날리기(개입, 도전), 이불로 풍선 치기(개입, 도전), 방석점프(도전), 손발그리기(개입), 달팽이 집(양육) 3. 마무리활동: 마무리 인사(구조)

<p>2회기</p>	<p>라포 형성 아버지와 아동의 욕구수준 파악</p>	<p>1. 시작활동: 시작인사하기(구조) 2. 본활동: 누구는 어디있나(개입, 양육), 스티커 붙이기(양육), 누구 발가락일까?(개입, 양육), 비눗방울 붙어 터뜨리기(개입, 도전), 자석놀이(개입, 양육), 이불썰매(도전, 개입), 솜공 달래주기(양육), 로션 도장찍기(양육) 3. 마무리활동: 마무리 인사(구조)</p>
<p>3회기</p>	<p>긴장이완하기 촉감놀이를 통한 소근육 힘 기르기</p>	<p>1. 시작활동: 시작인사(구조) 2. 본활동: 콩주머니 인사(개입), 이불 숨기놀이(개입, 양육), 비눗방울 붙어 터뜨리기(개입, 도전), 방석 썰매(도전), 천 줄다리기(도전), 페트병 쓰러뜨리기(개입, 도전), 신문지 찢어 날리기(개입), 신문지 촉감놀이(양육) 3. 마무리활동: 손 닦으며 마무리 인사(구조, 양육)</p>
<p>4회기</p>	<p>정서적 안정감 형성하기</p>	<p>1. 시작인사: 시작인사(구조) 2. 본활동: 콩주머니 인사(개입), 누구는 어디있나(개입, 양육), 방석 노젓기(개입, 도전), 붕-깍(개입), 신문지 올라가기(도전), 솜공 팝콘(양육), 신문지 찢어날리기(개입), 로션 뽀뽀(양육), 손 닦아주기(양육) 3. 마무리활동: 마무리 인사(구조)</p>
<p>5회기</p>	<p>상호작용 씨클 늘리기 아동의 참여를 위한 적극적인 개입</p>	<p>1. 시작활동: 시작인사(구조) 2. 본활동: 콩주머니 인사(개입), 날씨안마(개입, 양육), 솜공 터치 전달하기(구조, 양육), 호키포키(개입), 풍선 균형 잡기(도전), 신문지 격파(개입, 도전), 신문지 골인(도전), 신문지 찰흙(개입, 양육), 손 닦아주기(양육) 3. 마무리활동: 마무리 인사(구조)</p>
<p>6회기</p>	<p>양육의 원리를 통해 애정적인 상호작용 늘리기</p>	<p>1. 시작활동: 시작인사(구조) 2. 본활동: 콩주머니 인사(개입), 누구는 어디있나(개입, 양육), 비눗방울(개입), 풍선 맞대어 붙기(개입), 풍선치기(도전, 개입), 페트병 넘어뜨리기(도전), 미끌미끌 쪽(양육, 개입), 찰흙 주무르기(양육, 개입), 손 닦아주기(양육) 3. 마무리활동: 마무리 인사(구조)</p>

<p>7회기</p>	<p>상호작용 씨클 늘리기 신체조절 경험하기</p>	<p>1. 시작활동: 시작인사(구조) 2. 본활동: 콩주머니 인사(개입), 누구는 어디있나(개입, 양육), 비눗방울 불기(개입), 풍선방구(개입), 풍선 날리기(도전, 개입), 숨공 터치(양육, 구조), 찰흙 찍기(개입, 양육), 미끌미끌 쪽(양육), 손 닦아주기(양육) 3. 마무리활동: 마무리 인사(구조)</p>
<p>8회기</p>	<p>성취감 느껴보기</p>	<p>1. 시작활동: 시작인사(구조) 2. 본활동: 콩주머니 인사(개입), 풍선방구(개입), 호키포키(개입, 도전), 붕-깍(개입), 방석 노젓기(개입, 양육), 거울놀이(양육, 도전), 로션 놀이(양육) 3. 마무리활동: 마무리 인사(구조)</p>
<p>9회기</p>	<p>부-자 간 상호작용 및 협동능력 증가시키기</p>	<p>1. 시작활동: 시작인사(구조) 2. 본활동: 누구는 어디있나(개입), 풍당풍당(개입, 양육), 숨공 터치(구조, 양육), 동대문을 열이라(개입), 신문지 올라가기(도전, 개입), 신문지 릴레이 찢기(구조, 개입), 신문지 골인(도전), 뽁뽁이 신문지 촉감놀이(양육, 개입), 손 닦아주기(양육) 3. 마무리활동: 마무리 인사(구조)</p>
<p>10회기</p>	<p>부-자 신체접촉을 통한 정서적 이완 및 상호작용 행동 향상</p>	<p>1. 시작활동: 시작인사(구조) 2. 본활동: 콩주머니 인사(개입), 풍선방구(개입) 풍선날리기(도전, 개입), 신문지 공 만들기(도전, 개입), 신문지 공 골인(도전), 릴레이 찰흙 만지기(구조, 양육), 로션 놀이(양육), 손 닦아주기(양육), 마지막 축하 초 불기 3. 마무리활동: 마무리 인사</p>

E. 측정도구

1) 아버지의 상호작용 행동 평정척도

본 연구는 아버지의 상호작용 행동을 평정하기 위해 Mahoney(1999)의 MBRS를 사용하였다. MBRS는 평소에 아동과 상호작용하는 부모의 행동 유형을 측정하기 위해 3개의 요인과 12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진 어머니 행동 평정척도(MBRS: Maternal Behavior Rating Scale)이다. 국내에서 타당도 검증은 Kim과 Kwak(2006)에 의하여 확인되었고, 부모-아동 간의 상호작용 행동 평가를 위한 도구로 유용하다(Mahoney & Wheeden, 1999). 신뢰도 검증 시 Cronbach α 계수 .86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김정미, 박금주, 2006).

K-MBRS의 요인구성은 크게 ‘반응적 행동’, ‘효율적 행동’, ‘지시적 행동’ 3가지이다. 반응적 행동은 민감성(sensitivity), 반응성(responsivity), 수용성(acceptance), 즐거움(enjoyment), 온정성(warmth), 언어적 칭찬(verbal praise) 6가지의 하위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효율적 행동은 효율성(effectiveness), 표현성(expressiveness), 독창성(inventiveness), 보조(pace) 4가지의 하위요소에 구성된다. 마지막으로 지시적 행동은 성취 지향성(achievement orientation), 지시성(directiveness) 2가지로 이루어진다. 각 항목들은 리커트 5점 척도로 평가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상호작용 행동이 빈번한 것으로 해석가능하다. 단, 지시적 행동의 성취지향성과 지시성은 각각 아동의 감각운동과 인지적 성취에 대한 부모의 조장하는 정도, 아동이 행동하도록 부모가 지시하거나 명령하는 강도를 뜻하므로 본 연구는 지시성 점수가 낮을수록 긍정적인 상호작용으로 판단한다.

본 연구는 관찰측정에서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자 외 아동상담전공 박사과정 1명과 아동상담전공 석사과정 2명이 함께했다. 먼저, MBRS 평가자 훈련이 선행되었고, 평정자 간 일치도가 .90이상이 되었을 때 측정하도록 했다. Hintze(2005)에 따르면, 평정자 간 일치도는 80~90% 수준을 좋은 일치도라 판단한다. 프로그램 사전, 사후 부-자 자유놀이평가를 20분씩 촬영한 영상과 부-자 치료가 프로그램 회기영상에서 30분씩 관찰하고 측정하였다. Kim과 Mahoney(2013)에 따라, 신뢰도 분석 시 평정자 간 1점 차 이내 일치도 산출을 적용했고, 본 연구는 98.6%로 나타났다.

F. 자료분석

Merriam(1988)은 사례연구를 서술적유형, 해석적유형, 평가적유형 총 3가지로 분류하였고(Yin, 2011), 본 연구는 해석적(interpretive) 사례연구에 해당된다. 해석적 사례연구는 사례, 현상을 풍부하게 기술하는 서술적 사례연구와 함께 이론을 통한 해석단계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본 연구는 해석적 사례연구방법을 사용하여 부-자 치료놀이에 참여하는 아버지의 상호작용 변화과정을 분석하고 변화과정의 의미를 놀이치료의 이론적인 틀로써 해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부-자 치료놀이의 모든 회기 영상들을 전사했으며, 연구참여자의 경험을 폭넓게 이해하기 위해 아버지와 면담자료들도 함께 전사하여 분석의 자료로써 사용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들은 본 연구의 주제인 ‘상호작용’ 변화과정에 초점을 두고 다양한 의미 단위로 구분해 나갔다.

자료 분석에서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매 회기마다 놀이치료 전문가에게 지도감독을 받아 치료놀이를 진행했으며, 분석한 자료에 대해 아동심리치료 전공 교수 1인, 아동심리상담 석사과정 4인의 피드백을 통해 점검해나갔다. 더불어 질적 자료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삼각검증(triangulation)과 구성원검토(member checking), 전문가검토(auditing), 지속적인 참여와 관찰을 사용하였다(Glesne, 2006). 첫째, 삼각검증을 이루기 위해 3E(Experiencing, Examining, Enquiring)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조용환, 2015). 이를 위해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치료놀이 전체 과정에 대한 참여관찰을 위해 모든 치료 회기를 촬영하였고, 부-자녀 상호작용평가, 부-자 자유놀이평가 결과자료를 수집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10 회기 내내 아버지면담을 따로 진행하였고 이는 모두 녹음자료로 수집했다. 구성원검토를 위해 면담전사본과 원고 초안을 연구참여자와 공유하며 확인하였다. 또한 전문가검토를 위해 연구진행과 결과산출과정에서 질적 연구의 경험이 있는 아동상담전공 교수 1인과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하였고, 동시에 본 연구자의 선입견과 편견을 최소화하고, 사례의 의미를 그대로 산출하고자 아동상담전공 석사과정생 4인과 함께 자료를 분석하고 자료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갔다. 마지막으로 긴 연구 기간 동안 연구참여자를 계속적으로 관찰하고 면담을 빈번하게 진행하였다. 이는 모두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의 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자료 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아버지 면담에 대한 녹음 본 전체를 전사한 후 코

당하여 아버지의 언어 그대로를 최대한 사용해 메모, 개방코딩을 진행하였고, 본 연구 문제에 해당되는 주제를 따라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Miles & Huberman, 1994). 코딩한 자료들을 통해 주제를 끊임없이 수정해나갔으며 귀납적 방법을 사용하여 자료에 근거한 코딩의 주제들을 찾아가는 분석방법을 적용하였다. 코딩한 것을 기반으로 주제들 간 관계 및 연관성에 따라 범주화하였고, 코딩자료와 주제, 범주를 비교하고 검토하며 순환과정을 반복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의미와 주제를 도출할 수 있게 하였고, 아버지의 경험에 초점화하여 더욱 풍부한 분석 및 해석들을 도출할 수 있게 도움을 주었다.

IV. 연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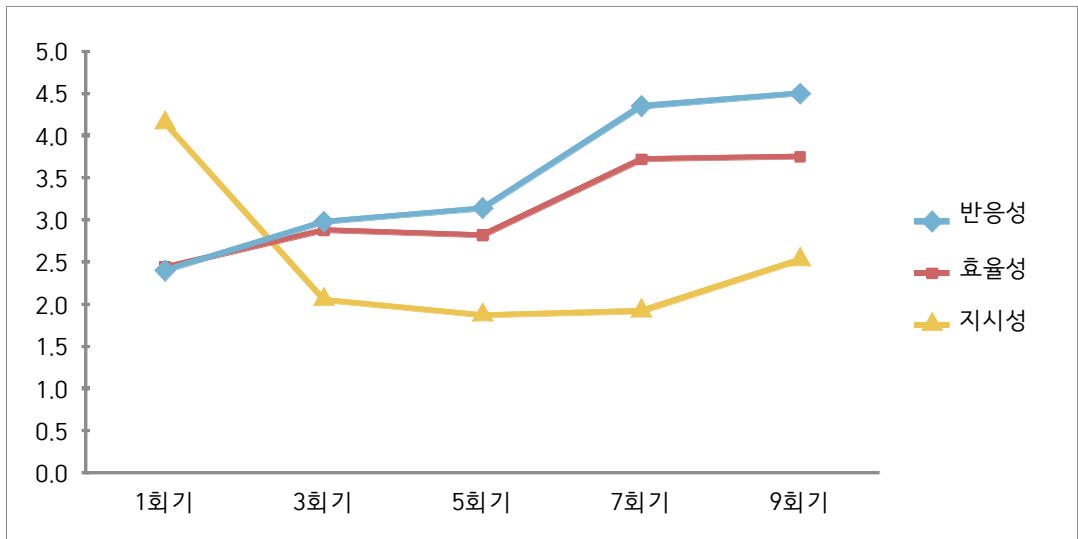
본 연구는 참여자인 아버지의 상호작용의 변화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관찰자 평정을 통한 시각적인 양적분석을 하였다. 또한, 프로그램 회기 내 상호작용 장면과 10회기의 심층면담자료를 통해 연구 참여자의 상호작용 변화과정을 분석하였다.

1. 아버지 상호작용 변화과정의 양적분석

<표 2>

	1회기	3회기	5회기	7회기	9회기
반응성	2.4	2.98	3.14	4.35	4.5
효율성	2.44	2.88	2.82	3.72	3.55
지시성	4.15	2.05	1.87	1.92	2.53

<그래프 1>



치료놀이 프로그램동안 아버지의 상호작용 변화과정 결과는 <표 2>, <그래프 1>과 같다. 이에 따르면, 회기가 진행될수록 아버지의 상호작용 행동점수가 점진적으로 향상된 경향을 알 수 있다. 반응성 행동점수는 1회기 2.4점에서 중간 5회기 3.14점, 9회기 4.5점으로 향상되었다. 효율성 행동점수는 1회기 2.44점에서 중간 5회기 2.82점, 9회기 3.55점으로 높아졌으며, 지시성 행동점수는 1회기 4.15점에서 5회기 1.87점, 9회기 2.83점으로 1회기와 비교할 때 지시성이 가장 많은 감소를 보여주었다. 지시성 행동점수의 경우 1,3,5,7회기 꾸준한 감소세를 보였지만, 9회기와 같이 아동이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을 때 지시성이 상승되기도 하였다.

2. 아버지 상호작용 변화과정의 질적분석

(1) 어색, 막막함 : “같이 논다는 게 뭐지...?, 놀이는 생소해요”

놀이 지속이 어렵고, 반응이나 흥미를 표현하지 않는 지적장애아동과의 놀이는 막막하고 어색하다. 특히나 어린 시절부터 혼자 노는 것에 익숙하고, 부모님과의 즐거운 놀이경험이 없는 아버지에게는 아동과 어떻게 놀이를 해야 할지 몰라 더욱 어려움을 많이 보였다.

“놀이라는 걸 해보지 않아서 어떻게 놀아야할지 몰라요”

“아이가 놀이할 때 반응이 없다보니 놀이가 줄었고, 반응이 없으니 어떻게 놀아줘야할지 막막해요” “놀이는 생소해요” (부 상담 中)

함께 놀이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보니 아동의 행동이나 욕구에 반응을 해주는 것도 벽차기만 하다. 프로그램 시작 전, 부모-아동 상호작용 평가(MIM)에서 아버지는 아동의 웃음에도 반응해주지 못한 채 무표정으로 일관했고, 아동과 아버지 사이에 따스한 눈맞춤도 부족했다. 아버지는 해야하는 과제가 무엇인지에만 집중했으며, 놀이의 대부분은 아버지가 주도할 뿐이고 이에 아동은 서툴게 따를 뿐이었다.

아버지는 인형을 꺼내 아동에게 인형들을 들어 보여주며 “이게 뭐야 엄마 엄마

해봐 엄마, 아빠 아빠해봐 아빠”라고 계속 아들에게 말을 해보라고 했고, 아들은 “야빠, 움떠”라고 말하며 따라한다. 그러던 중 아동이 인형을 보며 웃었고, 아버지는 놀이과제가 적혀 있는 카드에만 집중하며 무표정으로 “이건 다 했고 다음 거” 라고 말했다. <중략> 아들은 박수를 치며 뛰었으나 아이를 보지 않은 채 “이리와 00이, 앉아!”라고 말했다. 아들은 아버지의 말에 와서 앉지만 금새 일어나 다시 제자리에서 뒹다. (사전 MIM, 인형놀이)

아버지: “따라 그려봐 ”

아동: (관심없이 다른 곳만 봄)

아버지: “(색연필을 주며) 잡아봐, 해봐, 아니지!”

아동: (색연필을 잡음)

아버지: “그어봐 이제”

아동: (다른 그림을 그림)

아버지: “아니 이거 해보라고 이거 그려봐”

(사전 MIM, 그림그리기)

아동이 아버지에게 계속해서 안기려고 시도하였으며 팔로 아버지의 목을 감는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동을 안아주지 않고 아버지의 시선은 연구자에게만 향해있다. 아버지가 안아주지 않자 아동은 알 수 없는 소리를 내며 문쪽으로 달려간다 (1회기 中)

아동을 돌보기 위해 하는 최소한의 접촉만 이루어지는 아동과 아버지에게 따스하고 애정적인 접촉도 익숙하지 않다. 간식을 먹여줘야하는 과제나 로션을 발라주는 과제에도 어떠한 접촉은 없었다.

아버지는 간식봉투를 보며 “간식먹자 이리와”라고 말했다고, 아동은 바로 아버지의 옆으로 온다. 아버지는 비닐에 포장된 초콜릿을 그대로 아동에게 준다. 그리곤 아동이 다 먹은 것을 보자 아동을 보며 “다 먹었어? 하나 더 즐까?”라고 하며 간식을 바로 주지 않고 “아빠 해봐 아빠”라며 아동이 이를 따라하자 포장된 초콜릿을 그대로 아동에게 준다. (사전 MIM 간식 먹여주기)
 아버지는 로션통을 들고 아동에게 “손! 손줘봐”라고 말했다고, 아동이 손을 내미니

로션만 아동의 손에 짜준다. 그 후 “발라봐”라고 말하며 아동이 혼자 손을 비벼
바르도록 한다. (사전 MIM 로션놀이)

애정적 양육행동이 빈약한 아버지는 아동과의 접촉이 증진될 필요가 있었고 이
 를 통해 아버지와 아동 모두 양육경험을 할 수 있게 도와야했다. 연구자는 아동에
 게 먼저 상호작용을 시도하면서 아버지는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활동을 계
 획하였다. 놀이를 통한 접촉 경험이 늘어나면서 아버지는 아동과 신체접촉이 편안
 해지기 시작했다. 이 때부터 연구자는 아버지가 아동에게 직접 적용해 볼 수 있도
 록 지지적인 반응을 하였다. 예를 들면, ‘로션놀이’ 활동에서 아동과 아버지, 연구자
 가 함께 손을 잡으며 “아빠가 00이랑 같이 로션 쪽쪽이를 해주네~ 그래서 더 미끌
 미끌하고 00이가 재미있어하네”, “아빠가 같이 해주니까 00이가 더 재미있나보다”
 와 같은 격려를 지속하며 아빠가 아이에게 다가갈 수 있는 용기를 주고자 하였다.

(2) 딱딱함, 가르치기 : “치료사를 도와 뭐라도 해보자”, “놀이보단 교육”

아버지는 프로그램 초반 연구자와 아동이 함께 하는 놀이에서도 어색함을 많이
 보였다. 놀이 참여자로서 함께 즐기기 보단 코리더처럼 아동을 놀이에 참여시키기
 위해 통제하고, 아동만 놀이에 참여시키려고 했다. 이러한 점들은 아버지를 놀이참
 여자로서 함께하기를 어렵게 만들었고, 아동을 개입시키기 위해 지시, 통제를 하는
 역할이 되었다.

“00이가 집중할 수 있게. 옆에서 서포트? 음 그게 중요한거 같아요. 이게 지금
 목적이 집중..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집중해서 해야 될 프로젝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2차 부 상담 中)

아버지는 아동에게 현재 필요하고 중요한 것도 놀이보단 학습이라는 생각이 강
 하게 남아있었다. 그래서 놀이를 목적으로 치료실에 함께 있었지만 아버지행동의
 대부분은 지시, 반복학습으로 인한 교육된 놀이였다. 이로 인해 아버지는 놀이에서
 의 즐거움을 전혀 느끼지 못했고, 표정 역시나 무표정이었다. 가정에서 해왔던 부-
 자 상호작용의 특징이 여실히 드러났고, 프로그램 내에서도 재현되고 있었다.

“..좋아하는 것들만 좀 집중하고 다른 거는 아직도 약간 그런 거 같아서.. 집에서 더 학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2차 부 상담 中)

아동: (상동행동을 보이며 치료실 내를 돌아다님)

아버지: “(뽀뽀 손 모양을 하며) 뽀뽀 해봐 뽀뽀”

아동: (아버지를 쳐다보지 않고 각성행동을 지속함)

아버지: “(본인의 코에 손을 올리며) 코코코코해봐

(머리에 손을 올리며) OO아 일로 와봐 자 머리~ 코코코코!

“이거 원래 할 수 있잖아 집에서 많이 하는 거잖아”

(1회기 中)

아동: (허공에 시선을 둠)

아버지: (아동을 보고 간지럼을 피우기 시작함)

아동: (간지럼으로 인해 숨이 넘어갈 정도로 웃음)

아버지: (간지럼을 멈추고 아동에게 하이파이브 동작을 하며)

“자 하이파이브! 해봐 이쪽손으로! 이쪽으로!”

아동: (아버지의 손을 보고 바로 누워있다 일어나 하이파이브를 함)

(2회기 中)

아버지는 놀이를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는 것처럼 보였고, 놀이적 상호작용이 아닌 아버지의 일방적인 소통, 통제만이 존재했다. 아동을 대하는 모습에서도 서툰 이 보였다. 아버지는 언어가 아직 트이지 않은 아동에게 단어하나를 가르치기에 급급했고, 놀이보단 학습 위주의 상호작용이었다. 아빠와의 놀이에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 벗어나려는 아동을 통제하고 데려오는 행동들이 대부분이었다. 아버지는 놀이의 지속이 어렵고 신체 및 감정조절이 어려운 아동과의 놀이가 과연 필요한 건지, 가능한 일인지에 대해 의문감을 가지고 있었다. 아동 또한 아버지에게 안기거나 먼저 다가오지 않았고, 아버지의 지시로 인해 가까이 올 뿐이었다. 서로가 필요한 말만, 최소한의 상호작용만 하는 환경에 너무 익숙했고, 함께 노는 것은 아버지와 아동에게 어색하고 딱딱하게만 느껴진다.

아동과 놀이하러 함께 하는 즐거움을 느끼는 건 불가능할 거라고 믿는 아버지에게 연구자는 모델링이 되었다. 아버지는 전에 보지 못했던 아동의 모습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놀이를 하면서 점점 더 많아지는 아동의 미소와 웃음 그리고 연구자의 말과 행동에 반응하는 아동이 신기했다. 이러한 아이의 변화를 가능하게 한 연구자의 언어적 반응과 표정, 태도에 아버지는 집중하고 있었다.

(3) 애씀, 낙담 : “놀이에 아동이 참여하면 신나는데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요”

아버지는 연구자에게 더 많이 웃고 반응하는 아동을 보며 지시와 통제 외에도 아동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아버지는 연구자의 언어적 반영, 행동들을 그대로 따라하려고 애썼다. 연구자가 부르는 동요를 가사는 모르더라도 음이라도 따라하려 하고, 연구자의 행동을 ‘복붙’¹⁾하여 아동에게 적용해보기도 한다.

“저는 머릿속에 치료생각밖에 없어서 치료라면 무조건 같 생각으로 하고 어떤 행동을 해도 빠지 않고 할 생각이 있어서 치료실 안에서는 선생님 하시는 대로 따라가요 무조건 뭐가 됐든지! <중략> 저랑 선생님의 목적이 같으니까 무조건 따라가고 맞추려고 하죠. 서포트를 하죠. 제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최대한”
 (3차 부 상담 中)

“치료실에선 잘 노는 거 같아 보이긴 해요. 아동 스스로 하고 싶은 것들도 그렇고 여기는 “안돼” 이런 말이 없다보니까 더 잘 노는 거 같긴 해요.”
 (4차 부 상담 中)

아버지: (아동의 손을 잡고 같이 흔들고, 연구자의 노래 끝음을 따라 부르며)
 “요~요~ 콩주머니 짹짹!”
 아버지: (연구자를 따라 높은 톤으로 부르며)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콩~
 우와 00이 없다! 00이 없다!”
 아버지: (비눗방울을 불며) “00아 뭐야 이거 우와 아빠 간다” (그리곤 살짝 뿜)
 (3회기, 콩주머니놀이, 숨기놀이, 비눗방울놀이 中)

연구자의 부드러운 말투와 동요, 높은 톤들을 그대로 따라하는 건 초보 배우들의 ‘로봇연기’ 같은 어색함이 많았다. 회기가 지날수록 아버지는 익숙해져갔고 놀이에 더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접촉도 증가하고 아동의 행동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다. 아동이 하는 모든 행동들이 궁금해졌고 어떤 의도나 의미가 있는건 아닌지 질문이 늘어난다.

아버지: (콩주머니에 관심을 가지는 아동을 보고 콩주머니 하나를 쥐고 튕겨

1) 신조어로 내용이나 형태 따위를 복사하여 붙이다를 뜻한다 (우리말 샘)

올리며) “이렇게 하고 싶어?”

(3회기, 콩주머니놀이 중)

아버지: (비눗방울에 손가락을 대는 아동을 보고)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라고 묻더니

(아동과 함께 비눗방울에 손바닥을 가져다 대며) “이야~ 어~”

(3회기, 비눗방울놀이 중)

아버지: (흥분하며 뛰는 아동을 보고, 아버지도 같이 뛰며)

“우와 뛰는 거야?” (3회기, 천 줄다리기 전)

아버지는 아동과 함께 하는 놀이에서 즐거움과 신남이 느껴졌다. 아동이 치료실에서 보이는 변화들도 신기하였고 그래서 더 재미있었다. 아버지는 자발적으로 아동이 좋아했던 놀이를 집에서도 시도해보기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몰랐던 놀이도 배우게 되고.. <중략> 00이가 이걸 좋아하니까 집에서도 자주 해줘야되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4차 부 상담 中)

하지만, 아버지의 이런 노력과 적극성이 회기 내내 상승곡선은 아니었다. 시시각각 바뀌는 아동의 반응에 따라 실망하기도 했고, 반응이 좋을 땐 더 힘을 얻기도 했다. 모든 프로그램에 아동이 항상 놀이에 잘 참여하고 재밌어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은 이리저리 파도쳐갔다.

“비눗방울! 저도 그게 좀 재미있었던거 같아요. 옛날에도 그걸로 놀긴했는데 00이 반응이 막 크진 않더라고요 밖에서 해도.. 동생만 좋아하지 근데 아이가 재밌어하니까 같이 재밌었어요.. <중략> 오늘 프로그램하면서 어려웠 던거는 뭐 아이가 집중을 못하는 거 같아서 그게 좀 힘들었죠.” (2차 부 상담 中)

“일단 00이가 프로그램 하면서 잘 따라온게 그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제가 놀이하면서 좋으니까 오바도 하는거 같아요.. <중략> 아이가 놀이를 잘 못 따라올 때? ‘왜 이게 안 될까..’ 그런 것까지 생각이 들죠 <중략> 내가 어떻게 놀이를 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 (8차 부 상담 中)

아동과의 놀이에서의 실망감도 있었지만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다. 꾸준히 놀이

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연구자를 모델링하며 배우고 있었다. 아동 또한 놀이에서 아버지와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요구가 많아졌다.

(4) 부드러움, 웃기 : “화내지 않아도...”

아버지는 연구자와 처음 만난 날부터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았다. 부모모써 너무 모르는게 많아서 양육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다는 이야기를 꾸준히 해왔다. 지적장애아동을 키우면서 아버지가 가장 스트레스였던 부분은 아이가 남들에게 피해를 끼쳐 부정적인 시선을 받는 것이었다. 그래서 외출을 자주 안하게 되었고, 밖에서 아동과 함께하는 시간이 아버지는 즐겁지 않았다. 이는 엄한 아버지가 될 수 밖에 없었던 이유였다. 경련발작이 있는 아이여서 약을 먹어야 하는데 안 먹거나 주변에 사람들 있는데 문제행동을 보이면 체벌을 하기도 했고, 소리를 지르며 혼을 내기도 했다.

“아무래도 00이는 남들보다 체벌이 좀 더 심했죠. <중략> 약도 지금은 안그러는데 옛날엔 때리면서 먹었어요. 감기약도 때리면서.. 그게 아니면 간호사 의사 5명이 붙어도 아이에게 약을 못 먹이는 거예요.. <중략> 왜 했을까 싶은데 그 당시에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야 애가 제 말을 들었거든요. 그때 체벌한 것 때문인지 지금은 말로만 해도 먹어요.” (1차 부 상담 中)

“<중략> 뭘 해야할지 모르니까 저는 이런 환경 자체를 모르잖아요.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모르고.. 모르니까 폭력을 쓰는 거고, 모르니까 일단 폭력을 썼는데 무조건 폭력은 아빠라 할지언정 좋지 않아요. 결론적으로 무조건 폭력은 좋지 않아요. 폭력은 폭력일 뿐이지. 폭력은 애를 잡는 거잖아요. 압박을 해서... (1차 부 상담 中)

아버지는 자신의 태도가 아동에게 긍정적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당장 아이가 더 아프지 않아야 하고, 건강해져야 하기에 가장 빠른 길을 택했다. 모르는 사람들에게 아이가 이유없이 ‘손가락질’ 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더 엄하게 했다.

“프로그램 한 이 후 차이점은 확실하죠. 00이한테 큰소리 높게 하진 않죠. <중략>
톤 자체가 조금 더 달라 진거 같아요. <중략> 쉽게 이야기하면 스트레스도 덜
받고, 짜증도 덜나고, 그런 거 같아요. <중략> 근데 이걸 제 기준으로
이걸(프로그램) 좀 더 빨리했으면 좋았을 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애들을
키우는 아빠로써. “좀더 이걸 빨리 깨우쳤으면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4차 부 상담 중)

“첫째가 어떤 걸하면 조곤조곤말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과정??이죠 노력하는 과정.
00이한테 하는 행동? 말투? 좀더 부드럽게? 옛날에는 거의 압박으로 했던 것들을
지금은 부드럽게 다가가려고 하니까.. <중략> 요즘에는 진짜 악을 쓰진 않는 거
같아요. 악을 쓸 필요도 없고.. <중략> 집에서는 크게 악을 안 쓰고, “여기 와서
뛰어”하면 말을 들으니까 악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00이가 좀 그런 작은
말에도 따라오니까 더 막 크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5차 부 상담 중)

“최근엔 작게작게 이야기해도 소통이 되니까” (9차 부 상담 중)

“옛날에 90%? 70%? 아니 99% 짜증냈다면, 지금은 많이 줄었다는 거? 한 20%?
정도로 줄었어요. 저도 좀 당황스러워요. 그러니까 안하던 걸 하니까.. 그러니까
애기엄마도 좀 제가 낫설다고 하더라니까요” (10차 부 상담 중)

아버지는 목소리와 톤이 부드러워졌고, 아동에게 짜증이나 악쓰는 게 줄었다. 또
한 부정어만 있던 아버지와 아동 사이의 의사소통이 긍정어로 바뀌었다. 아버지는
상담센터로 들어설 때부터 무표정에서 웃는 표정으로 바뀌었고, 통제적이고 지시적
인 말투가 많이 줄었다. “~해!”라는 말투에서 “~해보자”라는 말투로 바뀌었고, 돌봄
을 위한 의무적인 접촉 외에도 애정적인 접촉이 많아졌다. 회기가 지날수록 아버지
의 몸에 자연스레 베어나왔다.

아버님이 아동의 신발을 벗기시며 노래와 부드러운 어투로 벗기시는데
너무 인상 깊었다. 많이 노력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실제로 표현된 순간이라고
느껴졌고, 모델링을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들었다. (20220820_연구자 노트)

아버지: (아동의 뒤에서 팔을 감싸 안아 리듬감 있는 톤으로 아동의 배 위에서 풍선을 만지면서 노래를 부름) “말랑말랑 말랑말랑~”

아버지: (멍하게 아래를 보고 있는 아동의 눈 앞에서 손을 흔들며 보이며) “뭐에 관심 있어 오늘?” (5회기, 풍선균형잡기 전)

아버지: (아동을 지긋이 바라보며) “OO야~ 우와~ 여기 또 있네?” (신문지를 아동에게 주며) “만들어 보자~” (5회기, 신문지골인 전)

아버지: (젖은 신문지를 찢으면서 아버지 나름의 노래를 만들어 부름) “뛰야, 뛰야 눈사람, 눈사람~” (젖은 신문지를 공처럼 뭉치고 리듬을 넣어 말하며) “신문지 놀이~” (5회기, 신문지찰흙 중)

아동이 각성행동으로 몸을 주체하지 못하고 계속 움직이자 아버지는 아동의 어깨를 잡으며 “OO이 마사지 좀 할까요? 진정하게?”라고 말한다. <중략> 아버지는 아동을 눕힌 후 아동의 가슴에 손을 올리고 조심스럽게 쓸어내리며 “어어 이제 진정~ 옳지 진정이 좀 됐어요?”라고 말한다. (7회기, 콩주머니인사 중)

아동이 아버지에게 몸을 기대며 의미 없는 소리를 내었고, 아버지는 아동의 소리를 따라내면서 아동을 받아 꼬옥 안아준다. (9회기, 뽀뽀이 신문지 촉감놀이 중)

아버지는 가정에서도 이러한 변화들이 이어졌고 어머니 뿐 아니라 아버지 자신 조차도 변화된 모습에 놀란다. 아버지의 변화는 아동 뿐 아니라 어머니와 둘째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바뀐 말투에 어색해하면서도 예쁘게 말하니 훨씬 덜 무섭고, 성격도 부드럽게 변하는 것 같다며 칭찬을 늘어놓았다.

“아내가 어색하다고 하죠. ‘내가 말투 이렇게 이걸 계속 해야 된다. 너도 해라’ 하긴 하는데 어색하대요.“ <중략> “네 이 프로그램에 고마워서 지금. 그게 그렇죠 제가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6회차가 결정적인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이제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거(바뀐 말투와 행동이)?”
(7차 부 상담 중)

“바뀐 말투와 행동이 처음엔 낯설었죠. 조금씩 이제 적응을 하고.. 좋은 것 같아요.

집에서 조금 조금씩 하는 것도 근데 애기엄마가 ‘어우 닭살이야’ 막 이러죠. 그런 걸 하나까 옛날 그런게 애기 엄마가 성격이 많이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쵸그쵸 많이 예민하게 안하려고 하나까” (10차 부 상담 중)

아버지는 놀이가 무엇인지 몰랐고, 놀이의 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의문감을 가졌었다. 초반엔 10회기라는 프로그램 자체를 끝까지 마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컸다. 하지만 아버지는 금요일 야근으로 잠 한숨 못자더라도 매주 빠지지 않고 참여하였다. 아버지의 노력에서 비롯된 표현, 태도의 변화는 아동에게도 닿았다. 평소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아버지에게 다가갔던 아동은 목적이 있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아버지에게 다가갔고, 먼저 스킨십을 요구하는 횟수도 증가했다. 그리고 프로그램 후 아버지는 아동에게 처음으로 “아빠”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아이의 변화를 점점 인식하게 된 아버지는 회기를 거듭할수록 주도적으로 놀이를 이끌어 가는 모습도 증가했다. 그러면서 아버지만이 제공할 수 있는 놀이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5) 편안한 ‘Touch’, 뿌듯함 : “아빠만이 줄 수 있는 효과”

“최근에는 좀 더 몸으로 놀아주려고 노력하고 있죠”
 (8차 부 상담 중)

“어떻게 노는지 모르고 야외활동을 생각도 못했는데, 이제 밖에 나가서 운동이라도 함께하려고 그러죠.” (10차 부 상담 중)

송은혜(2008)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놀이 상호작용은 질적으로 다르다고 보고한다. 어머니의 경우 아동의 돌봄 및 양육의 목적으로 하는 상호작용이 주가 되지만 아버지는 신체적 자극을 주는 놀이 활동을 통해 아동을 더욱 흥분시키고 활동적인 놀이를 할 수 있게 도우며, 다양한 도전을 해낼 수 있도록 촉진해준다고 밝혔다. 본 연구참여자 또한 신체적이고 활동적인 놀이 활동에서 반응이 늘어났다.

“액션을 많이 하는 거 같아요. 엄마가 잘 안 하고 그냥 제가 좀 액션도 크고, 말도 좀 많이 하고.” (7차 부 상담 중)

“(비눗방울을 아동의 입에 가까이 가져가며) 해볼까? (하며 직접 할 수 있게 함)
 <중략> (비눗방울을 다시 아동의 입앞에 가져다대며) 이걸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해볼까? 후~”

(7회기, 비눗방울불기 중)

(ct가 팔을 들며 다가오니 그대로 들어 슈퍼맨 자세를 취하며 앞뒤로 흔들어줌)

(9회기, 신문지골인 중)

아버지는 신체놀이를 통해 말보다 몸이 먼저 반응하기 시작했다. 몸으로 주고 받
 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반응이 늘었다. 아버지는 “지적장애 아이니까” 재미
 있게 놀이하는 건 당연히 안 되는 거라고 생각했다. “같이 부대끼는” 놀이는 지적
 장애 아이지만 즐겁게, 함께 하는 게 가능했다. 아동도 아버지에게 적극적으로 안
 기기도 하고 요구하기도 했다. 아버지는 그런 아이가 더 가깝게 느껴졌다.

“학습은 아이가 원하지 않아도 내가 이걸 학습을 위해 교육해야 되는 거고, 놀이는
 같이 부대끼면서 즐기는 거고 그게 가장 큰 차이점 같아요.”

(7차 부 상담 중)

“놀이하면서 신체적 접촉하게 되니까 친해지는 것 같아서 다른 걸 더 느끼기보다
 약간 친해지는 것 같은 게 좋아요.” (8차 부 상담 중)

(6) ‘Touch-Match’, 능숙함 : “아동의 감정과 행동을 수용한다는 건..”

아버지는 지금까지 “지적장애 아이니까” 교육에 매진해야 했다. 하지만 아이와
 소통은 점점 더 어려워졌고 걱정만 쌓여갔다. 아동에게 교육과 기본적인 양육을 제
 공하는 것만으로도 지친 아버지는 아동이 현재 어떠한 감정인지, 왜 이러한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할 틈이 없었다.

부-자 치료놀이에 참여하면서 아버지의 변화와 함께 아동 또한 적극적인 놀이참
 여가 많아졌다. 이를 통해 아버지는 아동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행동에 반응하는 속
 도가 점점 빨라졌다. 아버지와 아동은 ‘몸으로, 마음으로’ ‘주거니 받거니’ 하였다

아동: (웃으며 콩주머니를 아버지 머리 위에 올려놓음)

아버지: (ct를 보며) 그렇게 하는 거예요~

(5회기, 콩주머니인사 중)

아동: (놀이 도중 문 쪽으로 달려가며 나가려 함)

아버지: (아동을 보고 들어 올려 양옆으로 흔들며) 비행기~ 비행기~

..<중략>..

아동: (놀이 중 갑자기 주저앉음)

아버지: (아동을 보고) 아~ 00이 싫어 싫어~

(5회기, 호키포키놀이 중)

아버지: (웃는표정으로 아동을 바라보고 비눗방울을 불며) “같이 해보자 같이”

(아동의 입 가까이에 비눗방울을 대줌)

아동: (비눗방울 열심히 불지만 잘되지 않았고, 아버지에게 손을 가져다 댐)

아버지: (아동의 행동을 보고) “아~ 해줘~”

(7회기, 비눗방울놀이 중)

아버지: (자연스럽게 아동의 손을 잡고 앉히며) “앉아볼까요~?”

아동: (자리에 앉아 손으로 얼굴을 가림)

아버지: (얼굴을 가리는 아동을 보고) “아~ 부끄러웠어~”

(9회기, 시작인사 중)

아버지는 프로그램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본인이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스러운 마음을 표현했다. 이전에도 “굳이 내가 가야되나.. 엄마만 가면 되지” 했다. 그리고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어머니와 자녀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기에 소외감을 느꼈다. 아버지는 시간이 갈수록 아이의 양육자로서 설 자리가 없는 것 같았다. 하지만, 본 프로그램 종료 하면서 아버지는 가족 안에서 본인만의 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느껴봤으니까. 해봤으니까. 이런 것도 있으니까 해보는 것도 좋을 거 같아서 너무 추천하고 싶어요. 저처럼 장애아동을 키우는 아빠들에게..”

(10차 부 상담 중)

“이 프로그램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좋은 쪽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이게 옛날에는 사소한 거에도 그냥 짜증났었는데, 이거 하고 요즘에는 ‘그럴 수도
있지’하고 이해하고 넘기는 게 가능해지더라고요.. <중략> ‘어차피 안 되는 거
느긋하게 가자고.. 아니 안 되는 거 아니고 남들보다 좀 늦게 갈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프로그램하면서 많이 하다보니까 너무 조금해지지 않고 부담감을
내려놓게 되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10차 부 상담 중)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부-자 치료놀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버지의 상호작용 변화과정에 대한 의미를 탐색하고자 해석적 사례연구를 적용하였다. 본 연구는 주 1회 총 10회기 동안 부-자 치료놀이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질적자료를 수집하였다. 즉, 프로그램 전 회기를 촬영하고 전사한 내용, 아버지 상담 전 회기를 녹음하고 전사한 내용, 전문가 자문 내용, 연구자 노트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의 상호작용 변화과정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양적 자료와 질적 자료를 통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양적분석결과 반응성 행동점수는 1회기 2.4점에서 9회기 4.5점으로, 효율성 행동점수는 1회기 2.44점에서 9회기 3.55점으로 향상되었다. 지시성 행동점수는 1회기 4.15점에서 5회기 1.87점, 9회기 2.83점으로 약 2,3점 가량 감소하며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다. 둘째, 질적분석결과는 ‘어색, 막막함’, ‘딱딱함, 가르치기’, ‘애씀, 낙담’, ‘부드러움, 웃기’, ‘편안한 Touch, 뿌듯함’, ‘Touch-Match, 능숙함’ 6가지로 도출되었다.

통합적 분석을 통한 부-자 치료놀이에 참여한 아버지의 변화과정의 해석과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의 상호작용행동은 회기 초반에 비해 회기 중반, 후반으로 향할수록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프로그램의 후반으로 갈수록 아버지는 놀이를 통한 즐거움과 같은 반응성 행동이 지속적으로 상승했음을 알 수 있고, 특히 후반회기인 9회기엔 5점 만점 중 4.5점이라는 점수가 나타나 변화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지시성 행동은 가장 많은 향상을 보였는데, 1회기 4.15점이었던 점수가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1,2점대까지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아버지 상호작용 변화를 이끈 요인과 변화과정이 주는 의미로 ‘놀이로, 몸으로 관계맺기’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냥 노는 자체에 어려움을 느끼던” 아버지는 의사소통이 어렵고, 반응이 많지 않아 아동과 함께 즐거움을 공유하는 건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버지는 학습과 통제만이 아동을 보호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놀이라는 상호작용을 통해 “통제하지 않아도..” 아동은 아버지의 행동과 말에 반응했고, “화내지 않아도..” 소통을 가능하게 했다. 아동에게 적합한 수준의 상호작용은 아동의 웃음으로 이어졌고, 아동의 즐거

움은 곧 아버지의 즐거움이 되었다. 사전 자유놀이평가 결과에서 아버지의 즐거움은 1점으로 즐거움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의미와 같다. 하지만 사후 자유놀이평가에서 아버지의 즐거움은 2.5점으로 상승했고, 이러한 즐거움의 상승이 표현성에도 함께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Hughes(1995)의 놀이는 즐겁고 재미있다는 특징과도 맥을 같이하며, 치료놀이는 기쁨과 흥분이라는 긍정정서를 놀이에서 표출함으로써 아동들의 즐거운 경험을 공유 및 확장시킨다(윤미원 외, 2011)는 놀이의 치료적 힘과도 연관이 있다. 즐겁게 놀기가 가능해지면서 통제와 학습으로 인한 지시성이 굉장히 높았던 아버지의 지시와 교육적인 말투는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놀이를 통해 학습과 통제를 하지 않아도 즐거운 유대감을 경험하여 상호작용과 관계맺음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주입식으로 교육해서 말 하나를 가르치는 것보다 놀이를 적용하니까
 아이가 더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 같아서 훨씬 도움을 많이 받아요”
 (10차 부 상담 중에서)*

또한, 치료놀이는 우뇌발달을 기반으로 비언어적이며 접촉적인 놀이 활동을 활용한다(윤미원 외, 2011). 신체접촉은 신경을 통해 감각지각을 받아들여 심리적 안정감을 경험하게하며(Weiss, 1979), 사람이 지니는 감각 중 가장 사회적이고 정서적인 감각(Park, Chol, & Lee, 2010)으로 관계맺음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아버지의 놀이는 신체적 자극이 강하고 거칠다는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Stern, 1977), 이러한 거친 신체놀이는 신체 운동적인 요소와 상상놀이가 함께 이루어진 형태의 놀이로 공격성이나 경쟁적인 요소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Pellegrini & Smith, 1998). 이는 아동의 자기조절과 사회성 부분에 효과적이며, 아동이 다양한 도전을 해낼 수 있도록 촉진한다(송은혜, 2008). 특히, 지적장애아동에게 신체놀이는 재미를 촉진할 수 있고 자연스런 놀이상호작용과 접촉이 거의 없던 연구 참여자에게 더욱 적절한 개입전략이었다. 아버지는 “몸을 부대끼며 놀다보니 아동과 친해져서 좋아요..”, “놀이는 신체적 접촉을 하게 되니까 더 서로 의지하고 신경 쓰게 돼요”라며 신체접촉을 통한 놀이의 장점을 언급했다. 프로그램 중에도 아동이 주의집중에 어려움을 보일 때 슈퍼맨놀이를 하며 아동을 개입시키는 주도적인 모습도 나타났다. 신체접촉은 아동이 원하는 것 없이도 스스로 아버지에게 다가가도록 했고, 비언어적인 표현을 더욱 증가시켰다. 이는 신체적 접촉을 중심으로 즐겁

고, 자연스러운 자발적인 활동을 통해 융통성을 가지며 과정중심적인 특징을 가진 치료놀이의 장점과도 맥을 같이한다(Hughes, 1995). 이러한 신체놀이는 어머니보다도 아버지가 줄 수 있는 효과적 상호작용이며, 지적장애아동의 양육에 있어 아버지의 효능감을 증진시킨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둘째, 반응성과 지시성의 변화 보다는 효율성 행동 변화점수의 폭이 크진 않지만 조금씩 점진적으로 향상했음을 볼 수 있고, 초반회기 2점대에서 후반회기엔 3점 후반 대를 기록하며 효율성 행동이 빈번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아버지 상호작용 변화를 이끈 요인과 변화과정이 주는 의미로는 ‘눈으로, 몸으로 함께하기’를 발견할 수 있었다.

아버지와 아동, 연구자가 함께하는 환경은 아버지가 모델링 할 수 있도록 촉진시켰다. 참여한다는 것은 아버지가 직접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경험한다는 것이다. 부상담에서 아동의 유치원생활에 대해 묻자 아버지는 “선생님들은 좋게 말씀해주시는데 제가 직접 본 게 아니라 못 믿겠어요. 그래서 CCTV로 아이가 어떻게 노는지 보고 싶었는데 확인하는 게 쉽진 않더라고요”, “직접 눈으로 봐야” 알 것 같다고 하였다.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아버지는 연구자의 언어적 반응과 행동, 태도를 직접 관찰하였고 모방도 늘어났다. 또한, 직접 몸으로 해본 놀이 활동은 아버지의 몸이 기억했고, 가정으로까지 이어졌다.

셋째, 아버지의 상호작용 행동 중 수용성과 온정성이 후반 회기로 갈수록 점진적으로 상승하며 빈번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아버지 상호작용 변화를 이끈 요인과 변화과정이 주는 의미로는 ‘온 마음으로 함께하며 아빠 되어가기’를 발견할 수 있었다.

아버지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이나 친구들과의 관계경험이 적었고, 온전히 누군가로부터 수용 받거나 공감 받는 경험이 없었다. 아버지는 내담자의 성장을 돕기 위한 방법인 일치성(congruence), 공감(empathy), 무조건적 긍정적 수용(unconditional positive acceptance)이 전제(Rogers, 1961)가 되는 상담을 통해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털어 놓는다는 게 이렇게 힘이 될 줄 몰랐다”, “장애아동을 키우면서 가지게 되는 고민들을 아내 말고 다른 분에게 털어놓지 못할 때가 많은데 선생님께 털어 놓는다는 게 크게 느껴진다”, “제가 개인적으로 힘든 부분을 저도 모르게 이야기하게 된다”라고 하며 위로받았다. 또한 놀이를 통해 양육경험도 제공받으며 아버지 스스로 치유되는 경험을 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아버지는 자신이 가진 양육의 고민과 개인적인 힘듦을 조금은 상쇄시킬 수 있었고, 자기치유의 경험

은 그만큼 아동에게도 몰입할 수 있도록 영향을 주었다. 이는 아동에 대한 아버지의 수용성과 온정성의 증가를 이끌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버지는 지적장애 아동이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생각을 토대로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해왔다. 하지만 상담으로 경험한 온전한 수용과 공감을 토대로 아동을 스스로 해낼 수 있는 아이로 인식하게 된다. “아이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았는데 그동안 너무 기회를 못줬던 거 같아요”라는 보고와 프로그램 회기 중에도 아동의 행동을 있는 그대로 봐준 다던가 아동의 행동이나 감정을 읽어주려는 노력들이 이에 해당된다. 아버지로서 설 자리를 헤매고 있던 연구 참여자에게 상담자의 지지와 격려, 아동의 변화는 온 마음으로 함께하며 아버지가 되어가는 과정에 힘을 북돋았다.

본 연구는 질적 사례연구로써 단일사례를 깊이 있게 분석, 해석하며 부-자 치료 놀이에 참여한 지적장애아동을 양육하는 아버지의 상호작용 변화과정과 변화의 의미를 살펴 구체적인 맥락을 알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아버지가 경험한 치료놀이 사례를 아동상담의 맥락에서 해석했다는 점은 추후 지적장애아동 뿐 아니라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부모교육, 특히 아버지 교육에서도 이러한 아동상담을 적용해볼 수 있는 하나의 기초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아버지가 가진 고유한 역할을 장애아동교육에서도 적용해 볼 수 있음을 시사하며,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데 어머니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부-자 치료놀이가 활성화된다면 아버지만이 가진 놀이의 장점이 장애아동들의 발달, 사회성에도 배가되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며 아버지의 양육 효능감 또한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한편, 본 연구는 단일사례연구로써 특정한 아버지의 유일한 경험이며, 함께 참여한 지적장애아동의 변화와 모습들은 담아내지 못한 채 아버지 진술을 기초로 분석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다양한 상황에 놓여있는 아버지와 장애아동의 사례를 탐색, 분석해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또한, 치료놀이 프로그램 회기 내용을 획일화시켜 사용하기엔 한계가 있으며 치료놀이 참여자마다의 특성에 따라 회기계획을 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한다.

참 고 문 헌

- 고동완 (2003). 무용/동작 치료가 지적장애인의 정서표현 및 사회성에 미치는 효과. *한국무용동작심리치료학회, 5(1)*, 67-88.
- 교육과학기술부 (2005). 유치원 교육과정 해설.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고수정, 권순용 (2015). 가족통합자원, 발달장애아동의 사회적 능력,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간의 인과적 구조분석. *한국장애인복지학, 30*, 191-211.
- 고현, 박신희, 백지성 (2020). 유아 놀이성과 사회정서발달 관계에서 부모-자녀 상호작용의 매개효과. *동아인문학회, (53)*.
- 고여훈, 엄정애 (2010). 유아들의 거친 신체 놀이 양상과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 *한국아동학회, 31(4)*, 75-90.
- 김순영 (2009). 집단미술치료를 통한 지적장애 아동의 사회성 향상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보희 (2012). 활동중심 성교육 프로그램이 지적장애 여학생의 성의식에 미치는 효과.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동주, 고미선, 최영광 (2010). 감각통합훈련이 지적장애아동의 문제행동과 자기통제력에 미치는 효과. *재활심리연구, 17(2)*, 1-24.
- 김도희 (2017). 지적장애를 대상으로 한 미술치료의 중재현황과 연구경향분석-1994~2016년 국내학술지논문중심으로. *미술치료연구, 24(4)*, 879-905.
- 김은영 (2013). 사회적 지지와 부부 의사소통이 발달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꽃동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정미, 박금주 (2006). 취학 전 아동과 부모 간의 상호작용 행동평가를 위한 K-MBRS와 K-CBRS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19(4)*, 21-37.
- 김정주, 박형신 (2017). 아버지의 놀이신념이 유아의 놀이몰입, 또래놀이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버지의 놀이참여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보육학회지, 17(3)*, 29-48.
- 김한나, 정은희 (2013). 장애아동 부모교육 관련 학술지에서의 연구동향. *한국특수아동 학회지, 15(3)*, 381-407.
- 곽은정, 신진숙 (2011). 협력교수가 초등학교 지적장애아동의 문제행동과 수업참여 행동 및 교사와 일반아동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 13(3), 69-90.
- 김종훈, 박선미 (2020). 언어네트워크분석을 통한 유아놀이 관련 연구동향탐색.

- 21(2), 296-303.
- 김영덕 (2016). 부모의 놀이성과 놀이참여도가 영아의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 만 2세를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선혜 (2013). 아버지의 양육태도 및 놀이성과 아동의 리더쉽과의 관계. *순천향대학교 건강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예리, 박지연 (2017). 장애학생의 지적장애어머니를 위한 가정기반 양육지원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장애인 복지학회, 35, 177-207*.
- 김세영 (2015). 발달장애가 있는 아동과의 상호주체적 만남(미간행). 한국치료놀이 협회 가을학술대회 발표자료. 11월 7일. 서울: 홀리데이인 성북 오키드홀.
- 김세영 (2021). 발달장애아동의 치료놀이 기반 부모훈련 실행 사례연구.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교연 (2010). 지적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어머니의 돌봄 부담감 차이. *지적장애연구, 한국지적장애교육학회, 12(2), 283-305*.
- 김영준, 강영심 (2013). 어머니마음 참조 상황이야기 중재가 지적장애학생의 이동기술에 미치는 효과. *한국지적장애교육학회, 15(4), 91-110*.
- 김복선 (2011).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신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인순 (2008). 자기관리 전략을 이용한 학교 적응 행동교수가 정인지체 초등학생의 수업참여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숙 (2001). 교사가 지각한 5세 유아의 놀이성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단희 (2012). 거친 신체놀이가 위축된 정인지체아동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동주, 고미선, 최영광 (2010). 감각통합훈련이 지적장애아동의 문제행동과 자기통제력에 미치는 효과. *한국재활심리학회, 17(2), 1-24*.
- 김상겸 (2022). 영유아의 거친 신체놀이에 대한 연구동향 분석: 1995년-2021년까지의 국내연구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2(7), 213-231*.
- 김경림 (2022). 성인 발달장애 자녀를 둔 일하는 여성의 삶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조선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윤옥, 박성미, 박소영, 손미, 신경숙, 이은화, 정명화, 허승희, 황희숙 (2009). *질적 연구 실천방법*. 파주: 교육과학사.
- 김은혜 (2014). 미래사회를 대비한 장애인 리듬운동 프로그램 활용 방안: 지적장애 아들을 중심으로. *한국리듬운동학회*, 7(1), 13-24.
- 김세영 (2012). 초등교육 연구에 있어서의 질적 사례연구. *초등교육학회*, 19(2), 31-57.
- 권은희 (2009). 부자가정의 아버지-자녀 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가족치료놀이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나상미, 김혜순 (2011). 신체놀이 활동이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문제행동에 미치는 효과. *한국유아체육학회*, 12(1), 7-25.
- 도경민, 이희영 (2019).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아버지의 양육 참여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 20(4), 219-242.
- 문명국, 은혁기 (2022). 초등학교 지적장애아동 치료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동향분석. *한국초등상담교육학회*, 1(1), 343-367.
- 배미경, 김용미 (2016). 유아와 아버지의 변인이 유아의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20(4), 323-346.
- 백효정 (2021). 발달장애 아동 놀이치료에서 초보 놀이치료자의 놀이성에 대한 질적내용분석. 조선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승국 (2003). 대근육 중심의 협동놀이가 정인지체장애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적응 행동에 미치는 효과.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하은 (2021). 가정방문 놀이 코칭의 참여적 실행연구 -자폐스펙트럼장애아동과 어머니를 중심으로-. 조선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정식 (2010). AAIDD 11차 지적장애 정의와 분류 체제의 함의. *지적장애연구*, 12(4), 1-19.
- 박창옥, 최효영, 이성희 (2010). 신체 접촉 집단 놀이가 유아의 정서 지능에 미치는 영향. *한국유아특수교육학회*, *유아특수교육연구*, 10(4), 1-17.
- 박현숙 (2003).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놀이성과 부모효능감 및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은혜 (2015). 유아의 거친 신체놀이에 대한 아버지-어머니의 인식 및 반응의 차이.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준만, 강정숙, 김미선, 김은주, 김정효, 김현진, 이경순, 이금진, 이정은, 정귀순 (2016). 지적장애아교육. 서울: 학지사.
- 송은혜 (2008). 아버지의 놀이참여도 및 놀이성과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과의 관계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은희, 이미숙 (2012). 유아의 활동성 기질과 자기조절능력과의 관계= 어머니-유아 관계, 교사-유아 관계의 중재효과. *가정과학의질학회*, 30(2), 27-46.
- 신현순 (1999). 정신지체아의 행동수정에 관한 연구(미간행).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성영혜 (2000). 치료놀이 I. 서울: 형설출판사.
- 유아름, 김갑숙 (2016). 게임 활동 집단미술치료가 지적장애아동의 자기통제와 사회성에 미치는 효과. *한국예술심리치료학회*, 12(4), 115-144.
- 양덕일 (2013). 성인지적장애인과 일반인의 신체활동량 및 건강관련체력 비교.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기웅, 정종원, 김영석, 김한별 (2012). 서울: 박영사.
- 윤미원, 김윤경 외 3명 (2011). 치료놀이. 학지사.
- 이배, 김경숙 (2013). 아버지 양육참여도와 유아의 놀이성 및 자기조절능력과의 관계. *한국아동교육학회*, 22(3), 191-194.
- 이은희, 김수향 (2016). 유아의 창의성에 미치는 사회성과 놀이성의 영향력 연구.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21(1), 593-612.
- 안호진, 임연진 (2010). 유아의 놀이성, 적응, 그리고 문제행동과의 관계성연구. *한국아동학회*, 31(2), 53-68.
- 이상희 (2003). 모-아 치료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숙정 (2011). “심리운동사 자격을 위한 사회경험 워크숍”. 키파드심리운동연구소 연수 자료집.
- 오지현, 김진 (2019). 집단치료놀이에 참여한 특수교사의 상호작용 행동 및 공감반응 변화과정과 의미. *한국놀이치료학회*, 22(4), 487-513.
- 이은미, 백은령 (2010). 지적장애자녀의 생애주기에 따른 가족경험 및 지원욕구에 관한연구.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학회*, 4(2), 63-90.
- 오지현, 임시형 (2018). 아버지와 어머니의 놀이성, 공감적 정서반응과 유아의 놀이성이 유아의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 매기된 조절효과. *아동학회지*, 39(6),

113-130.

- 임정란 (2002). 유아의 놀이유형별 아버지의 놀이참여수준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세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준오, 홍광표 (2014). 유아 놀이성과 문제 행동 간의 관계에서 자기조절력의 매개 및 조절효과. 14(4), 175-193.
- 조향숙, 옥수선 (2017). 결혼이주여성의 지적장애자녀 양육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지적장애연구*, 19(4), 151-181.
- 조용환 (2015). 현장연구와 실행연구. *한국교육인류학연구*, 18(4), 1-49.
- 진홍신 (2000). 발달장애아동의 놀이성 특성 연구. *정서행동장애연구*, 16(2), 67-85.
- 진홍신 (2003). 한국판-놀이성 평정척도 (K-ToP) 표준화 예비연구. *정서행동장애연구*, 19(4), 71-90.
- 정갑순 (2005). 장애유아 부모의 장애아통합교육 및 부모교육에 대한 인식 조사 연구.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9(4), 107-132.
- 장은숙 (2002). 유아의 놀이성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병주 (2016). 발달장애아동 부모의 성별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부부의사소통 및 삶의 질 관계. *한국케어매니지먼트연구*, 20, 121-144.
- 최미숙, 송순옥 (2013). 유아의 놀이성이 자기조절능력 및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 *한국아동교육학회*, 22(2), 277-292.
- 최태산, 조미정 (2008). 학령기 아동의 놀이성 연구 -성,연령,놀이성,군에 관한 연구-.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1(1), 17-30.
- 최윤정 (2000). 유아의 놀이성과 사회성 발달과의 관계연구.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선경 (2004). 성인정신지체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양부담과 사회사업적 개입방안에 관한 고찰. *임상사회사업연구*, 1(2), 207-219.
- 홍정숙, 조정민 (2021). 장애학생 부모상담 및 가족상담관련 국내 연구동향과 향후 연구과제고찰. *한국지체,중복,건강장애교육학회*, 64(4), 175-205.
- 현경미, 강대옥 (2017). 장애자녀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가족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특수아동교육연구*, 19(3), 119-139.
- 한미현 (2002). 유아의 창의성, 놀이성, 정서지능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정숙, 표윤희 (2018). 아동기와 청소년기 지적장애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양육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한국지적장애교육학회, 20(4), 157-186.*
- 한동길, 김권일 (2003). 정신지체 특수학교 초등교사의 체육목표 인식분석. *한국특수체육학회지, 11(2), 165-180.*
- 한선혜, 박승호 (2015). 자폐성 장애아동을 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증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예비연구. *한국자폐학회, 15(1), 87-120.*
- 한유리 (2018). 초보연구자를 위한 질적 자료 분석 가이드. 서울: 박영story: 피와이메이트.
- 홍정애, 성영혜 (2007). 가족치료놀이와 발달장애아동과 부모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효과. *한국놀이치료학회, 10(3), 1-15.*
- 홍준표 (2006). 과제분석과 용암법에 의한 발달적결손행동의 치료교육 효과. *한국발달심리학회, 19(3), 89-108.*
- Kim, Jeong-mee, & Mahoney, G. (2013). Responsive Teaching Parent Education, *17(4), 245-275*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5th ed. Arlington, VA: American Psychiatric Publishing.
- Bigner, J.J. (1979). Parent-child Relations,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 Barnett, L.A. (1991). The playful child: Measurement of a disposition to play. *Play & Culture, 4, 51-74.*
- Baxter, P., & Jack, S (2008). Qualitative case study methodology: Study design and implementation for novice researchers. *The Qualitative Report, 13(4), 544-559.*
- Bundy; Sue Shia; Long Qi; Lucy Jane Miller. (2007). How Does Sensory Processing Dysfunction Affect Play?. *The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61(2), 201 -208.*
- Creswell, J. W. (2007).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2nded.)." Thousand Oaks, CA: Sage.
- Fein, G. G. (1985). The affective psychology of play. In C. C. Brown A. W. Gottfried (Eds.) *Play Interactions: The role of toys and parental involvement in children's development.* Skillman. NJ: Johnson &

- Johnson.
- Freedman, R.I. (1995). Balancing work and family: Perspectives of parent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Families in Society*, 76, 507-514.
- Fletcher, R., StGeorge, J., & Freeman, E. (2013). Rough and tumble play quality: Theoretical foundations for a new measure of father-child interaction.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183(6), 746-759.
- Grossman, F., Pollack, W., Golding, E. et al. (1998). Fathers and children: Predicting the quality and Quantity of fathering. *Developmental Psychology*, 24(1), 82-92.
- Ginsburg K. R. (2007). The importance of play in promoting healthy child development and maintaining strong parent-child bonds. *pediatrics*, 119(1), 182-191.
- Hintze, J. M. (2005). Psychometrics of direct observation. *school Psychology Review*, 34(4), 507.
- Huberman, A. M., & Miles, M. B. (1994). Data Management And Analysis Methods.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428 - 444, Sage.
- Hartup, Willard W.; Moore, Shirley G. (1990). Early Peer Relations: Developmental Significance and Prognostic Implications. 5(1), 1-17.
- Jernberg, A. M., & Booth, B. (1999). Theraplay: helping parents and children build better relationship through attachment-Based play. 2nd ed. SanFrancisco: Jossey-Bass.
- Lamb, M (1977). Father-infant interaction in the first year of life. *Child Developmnet*, 48, 167-181.
- Lamb, M. E. (1986). The Changing Role Of Fathers. In M. E. Lamb(Ed.), *The Father's Role: Applied Perspectives*. New York: John Wiley & Sons.
- Lamb, M. E. (1997). The development of father - infant relationships. In M. E. Lamb (Ed.), *The role of the father in child development*, 104 - 120. John Wiley & Sons Inc.
- LA. Rubim, K. H., Fein, G. & Vanderberg, B. (1983). Play. In P. Mussen & E. M. Hetherington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 Vol.4 Sociali*

- 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 693-774, New York : Wiley.
- Landreth, G. (1991). *Play Therapy: The Art Of The Relationship*. Levittown, PA: Accelerated Development.
- Lieberman, J. N. (1965). Playfulness and divergent thinking: An investigation of their relationship at the kindergarten level.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07, 219-224*.
- Mahoney, G., & Wheeden, C. A. (1999). The effect of teacher style on interactive engagement of preschool-aged children with special learning need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4(1), 51-68*
- Menashe-Greinberg, A., & Atzaba-Poria, N. (2017) Mother-child and father-child play interaction: The importance of parental playfulness as a moderator of the links between parental behavior and child negativity.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38(6), 772-784. doi:10.1002/imhj.21678*.
- Merriam, S. B. (1998). "Qualitative Research And Case Study Applications In Education."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Merriam, S. B. (2009). *Qualitative Research: A Guide To Design And Implementation*.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MacDonald, E., & Park, D (1984). Developmental course of responsiveness to social reinforcement in normal children and institutionalized retarded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6, 66-73*.
- Phyllis B Booth & Ann M Jernberg (2011). 치료놀이. 학지사
- Pellegrini, A. D., & Smith, P. K. (1998). The development of play during childhood: Forms and possible functions. *Child Psychology & Psychiatry Review, 3(2), 51-57*.
- Punch, K.F.(2005). "Introduction To Social Researc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pproaches(2nd ed.)" Thousand Oaks, CA: Sage.
- Pole L. V. D., Bruyn, E. J. D., & Ross, H. (1995). Parental attitude and behavior and children's play. *Play & Culture, 4, pp.1-10*.
- Parke, R. D. (1981). *Father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Yin (2011). *Applications Of Case Study Research*. Sage.
- Yin, R. K. (2003). "Case Study Research: Design And Methods (3rd ed.)"

- Thousand Oaks, CA: Sage.
- Yin (2009). *Case Study Methods: Design And Methods*. Sage.
- Freud,S. (1925). Three contribution to the sexual theory. nervous and mental Disease monograph Series, No.7 NEW York: Nervous and mental Disease Publishing Co.
- Rogers, C. R. (1961). *On Becoming A Person*, Boston : Houghton Mifflin.
- Rogers, C. S. (1988). Measuring playfulness; Development of the child behaviors inventory of playfulness. Paper presented at the biennialmeeting of the south western society of research in human development. New Orlean.
- Roggman, L. A., Boyce, L. K., Cook, G. A., Christiansen, K., & Jones, D. (2004). Playing with daddy: Social toy play, Early Head Start, and developmental outcomes. *Fathering, 2(1), 83-108*.
- Scheel, M. J., & Rieckmann, T. (1998). An Empirically Derived Description of Self-Efficacy for Parents of Children Identified as Psychologically Disordered,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6. 15-27*.
- Stake,R.E. (1995). *The Art Of Case Study Research*. Seoul:Changgisa.
- Stern, D. N. (1974). The Goal and Structure of Mother-Infant Play.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Psychiatry, 13(3), 402-421*.
- Stone, Lemanek, Fishel, Fernandez & Altemeier. (1990). Play and Imitation Skills in the Diagnosis of Autism in Young Children. *Pediatrics, 86(2), 267-272*
- Singer, J. L., Singer, D. G., & Sherrod, L. R. (1980). A factor analytic study of preschooler's play behavior. *American Psychology Bulletin, 2, 143-156*.
- Freud, S. (1925). The origin and development of psychoanalysis. (H. W. Chase, Trans.). In J. S. Van Teslaar (Ed.), *An outline of psychoanalysis, 21-70*.
- VanWynsberghe, R., & Khan, S. (2007). Redefining case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Qualitative Methods, 6(2), 80-94*.
- Weiss, S. J. (1979). The Language Of Tough, *Nursing Research, 28(2), 76-80*.

부 록

- <부록 1> 연구참여자 안내문
- <부록 2> 연구 참여 동의서
- <부록 3> 비디오 촬영 동의서
- <부록 4> K-MBRS 평가지침
- <부록 5> K-MBRS 점수 체크표

부록1. 연구참여자 안내문

치료놀이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공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선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아동상담전공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치료놀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지적장애아동과 아버지의 놀이상호작용 경험**”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치료놀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버지가 어떤 경험을 하는지 살펴보고, 아버지와 자녀의 놀이상호작용 변화과정과 그 의미를 탐색하고자 합니다.

치료놀이란, 부모-자녀 관계에 초점을 둔 치료기법으로 애착이론에 기반을 두며 상호작용, 신체적, 개별적, 재미를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아동과 양육자 사이에 안전하고 조율된 즐거운 관계형성을 통한 아동의 사회성 향상과 문제행동 감소가 치료놀이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연구 진행

- **일정**: 5월~8월, 매주 1회 (정확한 요일 및 시간은 조율 가능함)
- **장소**: 00대학교 00건물 0층 00대 심리상담센터 내 상담실
- **프로그램 구성**: 총 12회기 (처음 2회기는 상호작용 평가 및 사전면담이 진행되고, 10회기는 치료놀이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 > 치료놀이 프로그램은 연구자(놀이치료사)와 아동, 아버지가 함께 참여합니다.
 - > 치료놀이 프로그램은 35~40분으로 진행되며 치료놀이 프로그램 후에 아버지 상담이 15~20분정도 소요되어 한 회기 당 총 1시간정도 소요됩니다.

* 검사장면과 치료놀이 프로그램 및 상담내용은 동의 하에 촬영하며 모든 자료는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고 연구를 위한 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 연구참여자

- (필수) 만 5세 ~ 만 11세 사이의 지적장애아동과 아버지
- 아동 양육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아버지
 - 아동의 의사소통 및 사회성 향상과 문제행동 감소에 관심이 있으신 아버지
 - 프로그램 과정에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하신 아버지

본 연구에 참여 의사가 있으신 아버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신청 방법

- **기 간** : ~ 2022년 5월 30일 월요일까지 (선착순 마감 될 수 있음)
- **방 법** : 전화 접수
- **연구자** : 최혜림 (조선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상담전공)

연구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부분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위의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조선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상담전공
 석사과정:최혜림
 지도교수:오지현

부록2. 연구 참여 동의서

연구 참여 동의서

연구제목: '지적장애아동과 아버지의 놀이상호작용 단일대상 질적사례연구'

연구자: 최혜림

연락처:

1. 본인은 본 연구에 대한 설명문을 읽었으며, 연구의 목적 및 내용에 대하여 담당 연구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2. 본인은 연구 참여에 대한 위험요소 및 혜택에 관해 들었습니다.
3. 본인은 본 연구에 자유의사에 따라 참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4.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현행 법률과 생명윤리심의위원회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5. 본인은 연구자가 연구를 진행하고 결과를 관리하는 경우나 학교 당국, 연구윤리심사위원회가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비밀로 유지되는 개인정보에 대해 직접적으로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6.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이 연구의 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을 이해하였습니다.
7. 본인은 서명을 완료한 동의서를 연구 참여가 끝날 때까지 보관하겠습니다.

연구 참여 아동 성명 _____ (서명) 날짜 _____년 ____월 ____일

법정 대리인 성명 _____ (서명) 날짜 _____년 ____월 ____일

연구 책임자 성명 _____ (서명) 날짜 _____년 ____월 ____일

부록3. 비디오 촬영 동의서

비디오 촬영 및 녹음 동의서

본인 _____ 은(는) 본 연구 진행 동안 프로그램 활동에 대한 모든 내용에 대해 촬영 및 녹음을 허용하고 이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서 연구 담당자 _____ 이(가) 사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 연구의 모든 촬영자료 및 녹음자료는 아버지-자녀 간의 놀이상호작용의 변화과정, 아버지에 대한 부모상담 및 연구와 슈퍼비전의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연구 외의 다른 이유로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외부로 누출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합니다.

본인은 본 연구 내에 이루어지는 모든 비디오 촬영 및 녹음의 목적에 대해 구두로 설명 들었으며, 자유의사로써 본 연구과정에 참여할 것을 동의합니다.

연구 참여 아동 성명 _____ (서 명) 날짜 _____년 ____월 ____일

법정 대리인 성명 _____ (서 명) 날짜 _____년 ____월 ____일

연구 책임자 성명 _____ (서 명) 날짜 _____년 ____월 ____일

소 속 조선대학교 일반대학원 상담심리학과

부록4. K-MBRS 평가지침

K-MBRS (아버지행동 평가척도)		
반응성	민감성 (Sensitivity)	부모가 아동의 활동이나 놀이의 관심 정도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정도를 평가. 아동이 선택하는 활동에 부모가 참여하는 정도, 아동의 눈을 따라가며 아동의 활동을 주시하는 정도 -예시: 아동이 선택한 것을 함께 하는가, 아동의 눈을 따라가며 주시하는가, 아이가 흥미로워하는 것을 아는 것으로 보이는가.
	반응성 (Responsivity)	부모가 얼굴표정, 언어화, 제스처와 같은 형태로 단지 행동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아동의 행동에 즉각적이며 적합하게 반응해 주는지를 평가. -예시: 아동의 외현적 행동에 대해 어떤 형태든지(얼굴표정, 언어표현, 제스처등) 적합하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가, 아동의 행동에 대해 간파하고 있는가.
	수용성 (Acceptance)	아동자체나 아동의 행동에 대해 받아들이는 정도, 아동에게 표현하는 긍정적인 감정의 강도와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승인한다는 표현을 하는 빈도 측정 -예시: 아동의 수행을 존중 또는 가치롭게 여기는가, 사소한 행동에도 인정하고 긍정하는 표현을 하는가.
	즐거움 (Enjoyment)	아동과 상호작용 할 때 나타내는 부모의 즐거움. 아동 자체에게 나타나는 반응. 아동과 함께하는 자체에 대한 즐거움 -예시: 아동과 함께 머무는 것이 즐거운가, 환한미소를 짓는가, 소리내어 즐거움을 드러내는가
	온정성 (Warmth)	부모가 아동에게 보이는 따뜻함의 표시 정도, 쓰다듬기 무릎에 앉히기, 뽀뽀, 안아줌 등의 직접적인 신체접촉이나 목소리톤, 사랑스러운 언어로 아동을 대하는 긍정적 태도, 긍정적 감정 표현의 빈도와 질, 애정적 표현 정도
	언어적 칭찬 (Praise)	양적으로 아동에게 주어지는 언어적 칭찬 '아이착해', '잘했어', '옳지' 등
효율성	효율성 (Effectiveness)	놀이적 상호작용에 아동을 참여 시키는 부모의 능력, 부모가 상호적인 관계에 아동의 주의, 협력,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정도 (= MIM의 개입과 같은 맥락)
	표현성 (Expressiveness)	아동에게 생동감있고 정서적으로 반응, 표현하는 정도. 외현적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목소리 특성, 강도, 생기, 빈도 (보통보다 과장되게 표현하는 강도, 활기, 빈도)
	독창성 (Inventiveness)	부모가 아동에게 주는 자극의 범위, 다양한 접근의 수와 상호작용 유형, 아동의 흥미를 끄는 사물을 찾아내는 능력, 장난감을 다양하게 사용하는 방식, 장난감이 있든 없든 게임을 고안해 내는 다양한 방법들
	보조 (Pace)	부모의 행동 비율을 평가. 아동의 속도에 보조를 맞추는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과는 별개로 부모의 보조 속도를 평가 -예시: 부의 에너지가 너무 많아서 아동이 함께 반응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진 않은가, 반대로 부의 에너지가 너무 없어서 아동이 함께 반응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진 않은가
지시성	성취지향성 (Achievement)	아동의 감각운동과 인지적 성취에 대한 부모의 조장하는 정도. -예시: 아동에게 학습을 하려고 하는가, 학습을 위해 부모가 주도하는가
	지시성 (Directiveness)	아동이 즉각적으로 행동하도록 지시하거나 요구하고 명령하고 암시를 주는 빈도와 강도 -예시: 아동이 선택하기도 전에 부모가 미리 지시하는가, 부모가 계속해서 어떤 것을 제안하고 새로운 활동을 주도하는가

부록5. K-MBRS 점수 체크표

	1	2	3	4	5
아버지 행동 (K-MBRS)	나타나지 X	1~2회정도 나타남	반반 나타남	거의 나타남	지속적으로 나타남
보조	매우 느린 보조	느린보조	평균속도	빠른보조	매우 빠른 보조